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95호 【루계 제25704호】 주체106(2017)년 7월 14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스위스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식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한 결론》을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5일 바젤에서 진행되였다.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마르틴 뢰체르는 연설에서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로작을 출판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을 제시하신 김정은동지께서는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지난 4일 조선은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에서 단번에 성공하였다.

이것은 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관철에서 이룩된 거대한 성과이다.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는 선군조선의 력사에 특기할 대경사를 열렬히 축하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님들과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고전적로작들을 널리 소개선전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활발히 벌려나갈것이다.

세기를 이어 빛날 불멸의 혁명생애

조국과 혁명을 위한 전인미답의 초행길을 진두에서 헤치시며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백승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한평생을 외국의 벗들이 가슴뜨겁게 회고하고있다.

만마련맹련대성발전당 양곤지역위원회 비서 타 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나라잃고 천대와 멸시속에 살아오던 조선인민에게 민족재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참다운 인민의 나라를 세워주시였다.

그이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 진정한 인민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조선은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전변되였다.

참으로 김일성주석은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수령, 위대한 혁명가이시였다.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위업에 모든것을 바치신 절세위인의 불멸의 혁명생애는 세기를 이어 길이 빛날것이다.

스웨리예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오스카르 될레비는 류례없이 간고한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신 김일성동지의 령도사는 세계정치사에 전무후무한 성스러운 혁명실록이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온갖 원쑤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나라를 건설하였다, 탁월한 지략과 비범한 령군술로 한세대에 미일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김일성동지는 강철의 령장,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다고 칭송하였다.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요르단준비위원회 위원장 마르완 쑤다호는 김일성주석처럼 걸출한 영웅신화를 창조한 위훈자들을 향해 그들은 공화국기와 붉은기, 꽃다발들을 흔들며 뜨겁게 환송하였다.

당에 대한 열렬한 충정심과 비상한 실력, 헌신적인 복무정신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무력건설대업을 성취하고 반만년민족사의 대숙원을 풀어준 국방과학전사들을 위해 농업근로자들이 펼친 농악무와 학생위주악대들의 힘찬 노래선물이 환송분위기를 더해주었다.

국방과학자들은 물론 그들을 바래워주는 시민들모두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대륙간탄도로케트완성의 쾌료여경을 진두에서 헤쳐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거룩한 혁명세계, 뜨거운 열과 정의 날과 발들을 가슴뜨겁게 되새기였다.

《화성-14》형개발집단의 총설계가, 총제작자가 되시여 기발한 과학적성공의 비결도 가르쳐주시고 무한한 힘과 용기도 안겨주시며 언제나 고락을 함께 하시고도 대승리의 모든 공로를 고스란히 전사들에게 돌려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방과학전사들을 평양에 초청해주시고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성공기념 음악무용종합공연과 성대한 축하연회를 마련하여주시였으며 당 및 국가표창도 직접 수여해주시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는 최상최대의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진정 품만 같은 평양체류의 하루하루는 한생을 두고 추억할 영광과 행복의 절정이였으며 우리 당의 국방과학전사들 영예와 긍지를 가슴뿌듯이 절감한 끝없는 환희의 순간순간이였다.

우리 조국을 존엄높은 핵강국, 로케트명주국으로 떠받들어올린 참된 애국자들을 위인을 세계는 알지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토로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신 위대한 수령이시며 미증유의 전설적기적을 안아오신 희세의 영웅이시다.

그이께서는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 강의한 신념과 탁월한 령도력으로 조선인민을 하나로 묶어세우시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시였다.

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시대의 앞길을 밝히는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온 누리에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으며 그 신봉자대렬은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업적으로 하여 인류의 심장속에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신다.

체스꼬공산당-21중앙위원회 총비서 즈데네끄 끌리메끄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세상에는 이름을 남긴 정치가들이 적지 않지만 그이와 같이 10대의 어리신 나이로부터 80고령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탁월한 사상과 령도, 고매한 덕망을 지니시고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혁명과 건설을 승리와 영광에로 이끌어오신 위인은 일찌기 없었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은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계승발전되였으며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에 쌓으신 거대한 공적은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길이 간직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최고령도자각하께

존경하는 각하

조선인민의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대원수각하의 서거 23돐에 즈음하여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아프리카지역준비위원회와 나이제리아준비위원회,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아프리카지역인터네트토론회 《영원한 태양》에 참가한 우리들은 이 계기에 대원수각하께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토론회를 통하여 조선인민,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함께 탁월한 사상리론과 혁명실천으로 력사와 인류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김일성대원수각하의 위대한 생애를 깊이깊이 회고하였습니다.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대원수각하께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령도의 전기간 빛나게 구현하시여 그를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의 위대한 지도사상, 인류공동의 고귀한 정신적재부로 되게 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당과 국가, 군대를 창건하시고 조선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였으며 인류자주위업실현의 훌륭한 본보기를 창조하시고 조선민족의 통일위업수행에도 커다란 업적을 쌓으시였습니다.

특히 그이께서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은 단결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아프리카나라들의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시였으며 불륜불가담운동을 비롯한 모든 진보적인 운동들이 자기 리념과 원칙에 충실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걸출한 수령, 불세출의 위인, 인류의 대성인이신 김일성대원수각하의 사상과 위업은 김정은최고령도자각하에 의하여 빛나게 이어지고있습니다.

오늘 조선인민은 김정은최고령도자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짓부시면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경이적인 사변들을 이룩하고있으며 조선은 세계가 공인하는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습니다.

우리들은 김정은최고령도자각하의 령도따라 조선인민이 김일성대원수각하와 김정일대원수각하의 생전의 념원인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면서 각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조선인민의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대원수각하의 서거 23돐에 즈음한 아프리카지역인터네트토론회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위원장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
다미안 오그본나

2017년 7월 3일 아부쟈

당의 은정속에 뜻깊은 평양초청행사에 참가하였던 국방과학전사들 출발, 수도시민들 뜨겁게 환송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전략적핵강국건설구상을 받들고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이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뜻깊은 평양초청행사에 참가하고 13일 귀로에 올랐다.

수도 평양의 대학거리로부터 옥류교, 만수대거리, 평양체육관광장에 이르는 수십리연도에는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을 안아온 국방과학전사들을 환송하기 위해 모여온 시민들로 차넘치였다.

숙소인 4.25려관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이 국방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을 바래주었다.

국방과학전사들을 태운 버스들이 대학거리에 들어서자 각계층 근로자들이 환송의 꽃물결을 펼치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절사전 앞으로!》라는 신념의 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강위력한 전략무기개발완성의 길에서 불굴의 영웅신화를 창조한 위훈자들을 향해 그들은 공화국기와 붉은기, 꽃다발들을 흔들며 뜨겁게 환송하였다.

당에 대한 열렬한 충정심과 비상한 실력, 헌신적인 복무정신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무력건설대업을 성취하고 반만년민족사의 대숙원을 풀어준 국방과학전사들을 위해 농업근로자들이 펼친 농악무와 학생위주악대들의 힘찬 노래선물이 환송분위기를 더해주었다.

국방과학자들은 물론 그들을 바래워주는 시민들모두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대륙간탄도로케트완성의 쾌료여경을 진두에서 헤쳐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거룩한 혁명세계, 뜨거운 열과 정의 날과 발들을 가슴뜨겁게 되새기였다.

《화성-14》형개발집단의 총설계가, 총제작자가 되시여 기발한 과학적성공의 비결도 가르쳐주시고 무한한 힘과 용기도 안겨주시며 언제나 고락을 함께 하시고도 대승리의 모든 공로를 고스란히 전사들에게 돌려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방과학전사들을 평양에 초청해주시고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성공기념 음악무용종합공연과 성대한 축하연회를 마련하여주시였으며 당 및 국가표창도 직접 수여해주시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는 최상최대의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진정 품만 같은 평양체류의 하루하루는 한생을 두고 추억할 영광과 행복의 절정이였으며 우리 당의 국방과학전사들 영예와 긍지를 가슴뿌듯이 절감한 끝없는 환희의 순간순간이였다.

우리 조국을 존엄높은 핵강국, 로케트명주국으로 떠받들어올린 참된 애국자들을 바래우는 환송의 꽃바다는 옥류교와 창전네거리에도 펼쳐졌다.

민족의 장한 영웅들을 향해 두팔벌려 환호를 보내는 대성구역의 주민들과 붉은기춤물결을 펼친 서성구역의 녀맹원들, 서로서로 발돋음을 하며 손을 흔들어주는 귀여운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의 모습도 보이였다.

평양체류의 나날 이르는 곳마다에서 친혈육의 정을 부어주던 시민들, 헤여지기 아쉬워 연도에까지 달려나와 바래워주는 그 모습에 국방과학전사들은 감동을 금치 못해하였다.

꽃물결을 헤가르며 퍼스행렬이 만수대거리에 이르자 보통강구역, 평천구역 등의 주민들이 《안녕히 가십시오.》, 《더 큰 성과를 바랍니다.》라고 웨치며 뜨겁게 환송해주었다.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세계만방에 떨친 민족의 영웅들에 대한 환송열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뜨거웠다.

보통문으로부터 평양체육관광장에 이르는 연도에서 송전선건설사업소, 류현신발공장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당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가슴가득 받아안고 떠나는 국방과학전사들에게 열렬한 전투적인사를 보내였다.

그들의 진정에 넘친 인사에서 국방과학전사들은 당의 전략적구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탄의 장쾌한 뢰성으로 오늘의 민족사적인 대승리를 더 큰 승리로 줄기차게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조국과 인민의 기대를 가슴후덥게 느끼였다.

시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국방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은 대륙간탄도로케트를 장쾌하게 화을린 그 기세, 그 기백으로 련속공격전을 벌려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투적과업들을 결사관철할 철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평양이여 잘 있으라! 내 언제나 너를 심장에 안고 주체탄의 불뢰성으로 선군조선의 영웅적기상과 불패의 국력을 온 세계에 떨치리.

존엄높은 핵강국, 로케트강국의 공민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국방과학전사들처럼 만리마속도창조를 위한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눈부신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나갈 결의에 충만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구호들이 환송군중들속에서 련이어 터져나왔다.

우리 당의 믿음직한 국방과학전사들에 대한 수도시민들의 열렬한 환송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정다해 받들고 위대한 병진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과 반제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혁명적기개를 다시금 과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김 정 은 각 하 께

각하

저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3돐을 맞으며 말리련대성과 정의를 위한 아프리카당 전체 당원들과 그리고 저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김정일각하께서 수십성상 조선로동당을 령도하시면서 이룩하신 특출한 업적은 조선인민의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영원한 원동력으로 되고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각하께서 건강하시고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리련대성과 정의를 위한 아프리카당 위원장
띠 에 모 꼬 쌍 가 레

2017년 6월 7일 바마코

평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존경하는 김정은동지

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3돐을 맞는 뜻깊은 날인 6월 19일에 즈음하여 메히꼬로동당 전체 당원들과 저자신의 이름으로 그이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조선로동당을 강화발전시키고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침략위협에 대처하여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언제나 승리에로 령도하여오신 위대한 혁명가, 탁월한 령도자, 국제정치의 원로이시였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시는 당신의 고귀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가장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당신께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메히꼬로동당 전국지도자
알베르또 아나야 구띠에레스

2017년 6월 15일 메히꼬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협동농장에서 — 본사기자 백 옥
— 벽성군 서원 농장에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인민의 행복은 우리 수령님의 기쁨

어버이수령님께서 환히 웃으신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만든 《소나무》책가방에 새 교과서와 민들레학습장을 넣고 나라에서 준 교복을 입고 학교가는 모습을 보시는것이 그리도 기쁘신듯, 사회주의문명을 자랑하며 희한하게 일떠선 려명거리에서 인민들이 미치는 로동당만세소리도 남먼저 들으시는듯…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궂은 길, 진날을 가리지 않으시고 위대한 헌신의 자욱을 이어가신 어버이수령님께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만세소리 높이 울리는 오늘의 현실을 보시는것이 기쁘시여 금수산태양궁전에서 환히 웃으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의 행복은 수령님의 기쁨이였고 락이였습니다.》

나날이 커가는 행복속에서도 잊을수 없는것은 내 조국땅 그 어디에나 뜨겁게 새겨진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헌신의 자욱이다. 인민의 심장속에 소중히 간직된 그이의 사랑에 대한 추억이다.

지지리도 헐벗고 가난에 시달려오던 인민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마음속에 안고 사신분이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조국해방의 첫 기슭에서부터 인민들에게 문명하고 풍족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해 바치신 우리 수령님의 어버이 그 사랑을 《인민생활향상》이라는 이 글발이 얼마나 숭엄히 전하고있는것인가.

그중에는 이런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주체50(1961)년 7월 어느날 창성군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강냉이가공공장(당시)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공장일군의 안내를 받으시며 안으로 들어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냉이쌀저장탕크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강냉이쌀을 한줌 손에 드시고 이윽토록 살펴보시던 그이께서는 도의 한 일군에게 인민들이 좋아하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이 좋아한다고 대답올리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이 강냉이쌀이 잘 가공되였는가, 잘못 가공되였는가 어디 한번 말해보라고 하시였다.

일군은 뜻밖의 물으심에 인차 대답을 드릴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냉이쌀알을 다시 찬찬히 보라고 하시며 강냉이쌀가공에서 결함은 우선 쌀의 알갱이가 고르롭지 못한것이고 타음은 강냉이가루가 많이 나오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일군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에 대하여 일깨워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강냉이쌀을 흰쌀에 섞어서 밥을 지을 때 가마에 강냉이쌀을 먼저 안치고 어느 정도 삶다가 그우에 흰쌀을 얹는데 강냉이쌀에서 굵은 알이 다 익도록 삶자면 작은 알이 풀어져서 죽이 될것이고 작은 알이 익을 정도로 삶으면 큰 알은 익지 않을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밥짓는 녀성들이 얼마나 불편해하겠습니까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자신께서 강냉이쌀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도 해보고 강냉이쌀밥도 여러번 지어보았으며 농민들과 담화도 많이 해보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내가 집에서 직접 실험해본데 의하면 껍질을 벗긴 강냉이가 6분의 1의 크기로 고르롭게 타개졌을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위원장동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먼곳에서만 찾지말고 생활의 세부에서 항상 찾아야 합니다. 우리 인민들을 어떻게 하면 남부럽지 않게 잘살게 하겠는가 하는데서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표현됩니다.》

순간 일군은 가슴속격정이 쏵 차올라 아무 말씀도 올릴수 없었다. 인민들의 식생활을 그리도 걱정하시는 우리 수령님이시지만 그이께서 강냉이쌀의 크기까지 가늠해보시고 몸소 가마에도 안쳐보시려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것이다.

이끼가 오른 인류사의 잠피를 아무리 헤쳐도 우리 수령님처럼 6분의 1로 타개진 강냉이쌀에 인민의 행복을 담아본 례는 동서고금 어디에도 더는 없을것이다.

이것이 우리 수령님의 정법한 하루였고 거룩한 한생이였다.

그이께서는 새 조국건설의 바쁘신 나날에도 인민들의 생활형편을 알아보시기 위해 시장까지 돌아보시였고 양덕군 온하리와 같은 외진 산골마을에 찾아가시여 황금산의 새 력사도 펼쳐주시였다. 불비쏟아지는 전화의 나날에는 전반적무상치료제의 실시를 비롯하여 세계 그 어느 전쟁사에도 있어본적 없는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를 수놓으시였다.

가렬처절한 전쟁을 이겨내고 전후복구건설에서도 기적을 창조한 우리 인민들에게 사랑, 과자를 하나라도 더 먹이시려 마음쓰신 우리 수령님의 전설같은 이야기는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것인가.

주체55(1966)년 11월 어느날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현지지도로정에 예견되지 않았던 지방의 어느 한 시의 백화점에 문득 들어서시였다. 점심시간이 가까와올무렵이어서 백화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있었다.

맨 아래층 식료품매대로 다가가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판매원에게 사탕, 과자값이 얼마인가고 물으시였다.

판매원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값이 생각보다 비싼것 같은데… 라고 몇번이나 되뇌이시더니 동행한 일군에게 과자, 사탕값이 생산원가보다 거의 배나 높은데 왜 그런가고 놀라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안색을 흐리시면서 나는 늘 아이들이 먹는 식료품이나 일용품, 피복류의 값을 원가수준에서 많이 높이지 말고 눅게 정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 나는 항일무장투쟁의 어려운 시기에도 근거지아이들에게 옷과 신발, 담요 등을 유격대원들보다 먼저 마련해주었고 새 조국건설시기부터 오늘까지도 일관하게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눅은 값으로 상품을 팔아주라고 일깨워주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못내 서운해하시였다. 그러시더니 해당 부문의 한 일군을 부르라고 하시였다.

얼마후 그 일군이 도착하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을 알려주시면서 동무야 경제사업에 대한 나의 의도를 제일 가까이에서 알고있지 않는가, 왜 아이들이 먹는 과자, 사탕값을 원가의 몇이 되게 정하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괴해할만하다고 하시더니 못내 가슴아파하시였다. 그날 저녁 시당회의실에서는 백화점에 갔던 주민들을 위한 해설담화사업이 있었다.

한 일군이 나라의 경제사정에 대해 알려주면서 앞으로 아이들에게 사탕, 과자를 마음껏 사먹일수 있게 될것이라고, 그것때문에 우리 수령님께서 몹시 마음쓰고계신다고 말해주었다. 여기저기서 흐느낌소리가 들려오더니 갑자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함성이 터져올랐다. 하늘땅을 진감하는 그 만세소리를 들으며 일군은 지도모르게 눈굽을 축축히 적시였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보고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은 참 좋은 인민입니다, 그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날 한참동안이나 먼 하늘가를 바라보시며 눈굽을 적시시던 우리 수령님께서 그후 4월의 봄명절을 맞으며 온 나라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고급당과류와 산뜻한 새 교복이 안겨졌을 때 온 세상이 환하도록 밝게 지으시던 행복넘친 기쁨의 그 웃음을 천만년세월이 흐른들 어찌 잊을수 있으랴.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휴식이 있을수 없고 인민의 행복을 마련해가는데서 찾는 즐거움은 가장 큰 기쁨이라는것, 이것이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신 행복관이였다.

키가는 인민의 행복에서 더없는 기쁨을 찾으시였기에 우리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나날까지 2만 600여개의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였고 2 530여일의 일요일과 명절날들을 인민을 위해 바치시였다. 우리 인민모두가 오늘의 행복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그려보며 눈굽을 뜨겁게 적시는것도 바로 그때문이리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인민의 행복에서 찾으시던 우리 수령님의 기쁨은 나날이 더욱 커가고있고 수령님의 념원대로 온 세상이 부럽도록 잘살 날이 현실로 다가오고있다.

우리 천만군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기적으로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며 어버이수령님께서 그처럼 바라시던 인민의 지상락원, 사회주의무릉도원을 키어이 일떠세울것이다.

본사기자 김 준 혁

인민사랑의 뜻 꽃피우는 뿌리가 되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영예와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더 높이 울려야 합니다.》

그리움으로 불타는 7월이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정모의 정이 우리 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심장속에 꽉 차있다. 이룩하신 업적 하늘에 닿고 바치신 로고 끝이 없어서일것이다. 우리 공장을 무려 수십차례나 다녀가신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의 자취들을 더듬어볼수록 마냥 뜨거워지는 마음을 달랠길이 없다.

우리 인민들의 입는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이 그처럼 중하시여 주체37(1948)년 10월 10일 잠초부성한 대동강기슭에 몸소 터전을 잡아주신 때로부터 공장을 찾고 또 찾으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공장을 모든 생산공정이 그믐히 갖추어진 종합적인 방직공장으로, 방직공업의 어머니공장으로 훌륭히 꾸려주시기 위한 길에서 그이께서 수놓으신 사랑의 이야기는 그 얼마이랴.

생산의 동음높은 일터를 찾으면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일깨워주신 사적이 있고 로동자들의 웃음넘치는 합숙을 찾으면 몸소 국맛까지 보아주신 사적이 있다. 로력영웅칭호를 지닌 방직공의 성장의 잠피를 헤쳐보면 기대를 타루면서 하루에 걷는 거리까지 세심히 알아보신 사적이 있다.

인민들의 입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정법한 방직공들을 위하여 키울이신 어버이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력사는 주체100(2011)년 5월까지 공장을 10여차례나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손길에 의하여 줄기차게 이어졌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을 그대로 안으시고 주체102(2013)년 10월 우리 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면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하나만 놓고보아도 수령님들의 인민에 대한 헌신의 력사를 잘 알수 있다고, 이 공장에는 수령님들의 인민관이 집대성되여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후에도 공장을 거듭 찾으시면서 수령의 유훈관철의 불길,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주시였다.

공장의 로동자합숙을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희한한 건축물로 세로 일떠세워주시였다.

공장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해왔다.

지금까지 공장에서는 17명의 로력영웅이 배출되였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이 벌어지는 올해에도 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의 정신력발동을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참신하게, 실효성있게 진행하여 18명의 2년분 인민경제계획완수자, 80여명의 년간 인민경제계획완수자들이 배출되게 하였다.

당위원회에서는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한 5대교양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동함으로써 공장이 당정책관철의 본보기공장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나가도록 하겠다.

공장의 일군들 누구나가 종업원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헌신적복무로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활짝 꽃피워나가는 뿌리가 되도록 하겠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당위원회
위원장 오 춘 영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유격대부부살림집》에 깃든 이야기

강 위 룡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백두산시절 부부인연을 맺은 우리(나와 김확실)들에게 돌려주신 은혜로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회상실기 《그이의 품속에서 꽃펴난 사랑》에 상세히 썼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우리 유격대부부에게 더욱더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안겨주시였다.

전번에 다 쓰지 못한 그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를 여기에 더 적는다.

횡산밀영에서 화실동무를 만나 감격적인 상봉을 한 후 겨울군복을 만드는 재봉대동무들을 도와주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곰의골밀영으로 돌아온 나는 그이께 임무수행정형을 보고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의 보고를 받으시고 수고하였다고 치하하신 다음 동무에게 또 한가지 어려운 과업을 맡겨야겠다고 하시면서 집을 지을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집을 짓되 빨리 지으며 지금까지 짓던 집들보다 더 훌륭한 집을 지어야겠다고 강조하시였다.

뜻밖의 과업이였지만 나는 선자리에서 힘있게 말씀드리였다.

《알았습니다. 사령관동지! 귀틀집을 몇채 지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시는 과업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고싶었던 나는 그이께서 특별히 맡겨주시는 과업을 수행하게 된것이 무릉 기쁘기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한 나의 대답을 들으시고 만족해하시며 대원 몇사람을 붙여줄테니 래일부터 일에 착수하라고 하시였다.

영예로운 임무를 받은 나는 다음날부터 4명의 대원들과 함께 그이께서 정해주신 《명당자리》에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동무들, 우리가 짓는 집은 사령관동지께서 친히 과업을 주시어 짓는것인데 사소한 부족점도 없도록 알뜰하면서도 좀지 않게 정성을 다해 잘 지읍시다.》

일을 시작하면서 나는 동무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였다. 그것은 나자신의 결의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걱정도 없지 않았다. 어랑촌유격근거지와 최창즈유격근거지에서 그리고 교하원정의 나날에 많은 귀틀집을 지었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특별히 잘 지으라고 하신 집을 그전날의 헤사로운 집들처럼 지을수는 없기때문이였다.

돌이켜보면 그전에 내가 지은 귀틀집들은 벽이 통나무를 그대로 무은것이여서 어둡고 우둥퉁한것이 결함이였다. 나는 절대로 그런 집을 지어드릴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같은 귀틀집이지만 해도 잘 들고 아늑하면서도 정갈한 집을 지어드리고싶었다.

나는 동무들과 토론을 거듭하였다. 지혜를 합치니 좋은 방도가 나졌다.

좀 품이 많이 들어도 집이 좋은 나무들을 절반 쪼개서 그 쪼갠 면을 매끈하게 다듬어 방안벽이 되게 집을 짓자는것이였다.

우리는 나무들을 찍어다 도끼로 쪼개였다. 그리고 자귀나 대패가 없기에 도끼로 다듬었다. 도끼로 《통나무널》을 매끈하게 다듬자니 여간 힘들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힘과 성의를 다해 헌만한 목수가 대패질을 한것보다 못지 않게 나무를 매끈하게 다듬질했다.

이렇게 매끈하게 다스린 나무로 귀틀집을 지으니 안벽이 널판자를 댄것처럼 깨끗하였다.

천정도 관자를 만들어가지고 서까래가 보이지 않게 하였다. 벽과 천정이 매끈하고 깨끗하니 집안이 더없이 환하고 알뜰해보였다.

우리는 두 벽면에 퇴창을 내어 해빛이 더 잘 들게 하고 출입문도 판자쪽으로 꼭 맞게 짰다. 난로도 놓고 책상, 의자도 만들어놓았다.

우리는 밤낮으로 일을 다그쳐 이틀만에 집을 완공했다. 다른 밀영에 일보러 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돌아오시기 전에 집을 지어 그이를 기쁘게 해드리고싶은것이 우리들의 심정이였다.

드디여 그이께서 밀영에 돌아오시였다.

나는 한달음에 달려가 명명대로 집을 다 지었다고 보고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벌써 다 지었는가고 하시면서 가보자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 지은 집을 보시고 번듯하게 잘 지었다고 하시면서 방안으로 들어가시였다.

그이께서는 다른 귀틀집들과는 판판다르게 깨끗하고 환한 집안을 이윽토록 살펴보시고 못내 만족해하시며 《참 수고했소. 방안이 밝고 깨끗하여 마음에 드오.》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벽도 만져보시고 책상도 쓸어보시면서 나무다듬질을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나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러니 도끼 하나로 이렇게 지었단 말이겠소라고 하시면서 항일전쟁은 사람들을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죽음도 두려움도 모르는 불굴의 투사로만이 아니라 재간둥이로도 키운다고, 정말 재간이 있다고, 나는 장동무에게 일등목수자격을 주어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내가 과분한 치하의 말씀에 몸둘바를 몰라하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정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시며 《오늘부터 확실동무와 함께 이 집에서 생활하시오.》라고 이르시였다.

나는 너무도 놀라운 말씀에 자기 귀를 의심하며 한순간 아무 말씀도 올리지 못하였다. 꿈에도 생각할수 없는 뜻밖의 일을 당하고보니 어떻게 처신해야겠는지 알수가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는 나에게 다른 생각말고 어서 그렇게 하라고 다시 이르시였다.

《사령관동지! 그것만은 절대로 안됩니다. 유격대원이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겠습니까. 실사 그렇게 한대도 이 집만은 절대로 안됩니다. 이 집은 사령관동지께서 꼭 쓰셔야 합니다.》

나는 목이 메여 떠듬거리면서 애원하듯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는 동무가 횡산밀영으로 갈 때처럼 떼를 쓸것 같아서 무슨 집이라는것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전번에도 말했지만 가정과 혁명은 분리되여있는것이 아니라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도, 원쑤놈들앞에서 굴할줄 모르는 희생성과 용감성도 바로 가정에 대한 애착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나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야말았다.

사람들은 흔히 나를 《곰》이라고 하였다. 남달리 체통이 크고 힘이 세서만이 아니라 곰처럼 감정을 나타낼줄 모르는 무뚝뚝한 성미때문이기도 한 별칭이였다. 그런 나였지만 그 순간에는 하늘같은 은덕, 대해같은 사랑에 감격하여 저도모르게 울음을 터치였던것이다.

그후 장백땅인민들속에서는 백두산장수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들의 결혼을 축복해주시고 백두산기슭 하늘아래 첫 동네에 궁궐같은 기와집을 지어주시였다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널리 퍼지게 되였다.

그무렵 내가 지방공작을 나갔을 때인데 사람들은 빨찌산에서도 부부생활을 하면서 재미나게 산다는데 그것이 정말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번 손을 드시여 집터를 찍어주시면 이튿날에는 벌써 그 자리에 번듯한 기와집이 솟아나 짝을 무은 유격대부부들이 새 살림을 시작한다는데 그게 과연 사실인가고 하였다.

그때 나는 그것이 다 사실이라고 하면서 《유격대부부살림집》에 깃들어있는 사연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면서 그 꿈같은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고 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인민들은 과연 위대한 장군님이시라고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장군님 이야기로 꽃을 피우군 하였다.

항일전의 나날에는 그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안겨주신 《유격대부부살림집》에 유격대신혼살림을 폈던 내가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수많은 자식들을 키느리고 온갖 복을 다 누리며 인생말년을 보내고있다.

어찌 나뿐이겠는가.

나뿐이 아닌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며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꽃피우고있는것이 내 나라, 내 조국이다.

이 복받은 땅에 륭성번영하는 주체의 강성대국이 일떠설 그날은 멀지 않았다.

애국의 마음은 한그루의 나무에도

이 땅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자기의 살점처럼 여기고 아름답게 가꾸는 바로 여기에 참된 애국이 있다.

이런 숭고한 사상감정을 길이 새겨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산천을 록음이 우거지게 하려면 나무를 많이 심을뿐아니라 심어놓은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애호관리하여야 합니다.》

주체37(1948)년 3월 어느날에 있은 일이다.

이날 만경대혁명학원 교직원살림집건설장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방금 찍은 나무의 그루터기를 보게 되시였다.

나무를 찍어버린 사연을 알게 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것을 지시한 현장지도원을 즉시 부르시였다.

급히 달려온 현장지도원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무 한대 찍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고 물으시였다.

30분동안에 찍었다는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나무가 몇해나 자란 나무같은가고 또다시 물으시였다.

현장지도원은 한 20년 자란것 같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기 나무는 20년 자라도 그렇게 크지 못한다고, 한 40년은 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현장지도원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40년이라는 수자앞에서 그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40년 큰 나무를 30분에 찍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고 하시면서 찍기는 힘하지만 키우기는 그리 쉽지 않다고 가슴아프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현장지도원은 심한 죄책감으로 머리를 들수 없었다. 자기가 엄청난 실책을 범했다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우리는 항상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고, 바로 거기에 조국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잘못을 일깨워주시였다.

우리가 집을 짓고 생활하느라면 그 나무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나무를 찍을 때 아마 동무에게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적었던것 같소.

앞으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오. 조국의 나무 한그루라도 아끼고 사랑해야 하오. …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가르치심은 그의 가슴에 뜨겁게 파고들었다.

40년과 30분, 이 이야기는 우리 천만군민으로 하여금 오늘도 어떤 숭고한 애국심을 지니고 산림복구전투에 떨쳐나서야 하는가를 새겨주고있다.

조국의 산과 들, 우리가 사는 마을과 일터마다에 한그루의 나무라도 더 심고 아끼고 가꾸는 진정한 애국자가 되라고.

본사기자 림 정 호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에서 전형단위들의 모범을 따라배우자

이런 결사관철의 의지와 창조본때가 황금해를 펼친다

년간 수산물생산목표를 돌파한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

지난 6월 10일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는 년간 수산물생산계획을 100.1%로 빛나게 완수하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만 수천t이나 높은 실적이며 두해전 생산량의 1.8배를 릉가하는 눈부신 성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군대의 결사관철의 정신과 기풍으로 투쟁함으로써 수산부문을 빨리 추켜세우고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인민들의 식탁우에 바다향기가 풍기게 하여야 합니다.》

만리마선구자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황해남도에서 바다가양식을 대대적으로 할데 대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30돐을 맞는 뜻깊은 해에 서해의 유명한 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 이룩된 증산성과는 황금해력사창조의 한페지를 눈부시게 장식하였다. 하지만 그 성과보다 더 귀중한것은 조국의 최전연인 서해의 열점수역과 린접한 곳에서 부포의 어로전사들이 발휘한 영웅적투쟁기풍이다.

인민군대 어로전사들처럼 바다나물증산투쟁을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전으로 여기고 한kg한kg의 수산물을 원쑤들에게 퍼붓는 한발한발의 포탄을 만들어내는 심정으로 증산해낸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의 로동계급을 당에서는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에서 전형단위로 높이 내세워주었다.

연평도가 총포성없는 격전장에서

눈뿌리 아득히 펼쳐진 수백정보의 양식장너머로 가증스러운 적들의 소굴 연평도가 뚜렷이 보인다. 5개월 남짓한 기간에 년간계획을 장행돌파하기 위해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이 최전방바다우에서 벌렸던 증산돌격전의 화폭을 지금은 볼수 없다.

하지만 마치도 무수한 격전을 치른 함선들처럼 한척한척의 전마선들의 다스러진 때전들과 노들 그리고 해별과 해풍에 검실검실해진 양식공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들이 이어온 160여일의 결사전의 나날을 그려보았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사업소지배인인 어만천동무는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한줄기 바람결조차 치렬한 전장의 중압으로 느껴지는 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저 양식장을 원쑤들과의 결전장으로 생각하며 일하고있습니다.》

보통의 각오나 준비정도로는 짐명할수 없는 아름찬 년간 수산물생산목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단위와 과학연구기관들사이의 협동을 강화하며 기업체들에서 자체의 기술개발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확대와 경영관리개선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로 경제발전을 추동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가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속에 최근 동림군의 여러 협동농장들에서 비료를 피복처리하여 그 효과성을 높이고있는 사실이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물리비닐알콜용액과 진흙, 여러가지 미량원소 등을 일정한 비률로 혼합하여 피복처리한 비료는 종전의 비료보다 효과성이 높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포전에 비료를 준 후 일정한 기일이 지나면 비료성분이 여러가지 요인으로 적지 않게 류실된다.

그러나 이 비료를 주는 경우 종전보다 그 류실량을 훨씬 줄일수 있다. 비료를 피복하면 알갱이겉면에 미세한 얇은 막이 형성되므로 물속에서 천천히 풀린다. 이로부터 논벼는 비료성분을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흡수할수 있다.

더우기 적지 않은 포전들에 모래기가 많은 군의 실정으로 볼 때 피복처리한 비료의 효과는 더 크다.

지난 시기 군에서는 모래기가 많은 포전들에서 물스밈에 의한 비료성분의 류실현상이 심하여 비료효과성이 떨어진것은 물론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는데서 적지 않은 지장을 받았다. 어떤 포전에는 비료를 여러차에 쳤지만 수확고는 기대했던것보다 오르지 못하였다. 하지만 피복처리한 비료를 주면서부터 이러한 결함을 극복할수 있게 되였다.

군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시험적으로 피복처리한 비료를 준 포전에서는 처리하지 않은 비료를 준데 비하여 비료성분이 20여일간 더 유지되였다고 한다. 따라서 피복처리한 비료의 효과가 훨씬 높아졌다는것이 검증되였다.

그들은 이렇게 비료를 피복처리하여 리용하면 이전에 비해 적지 않은 비료를 절약할수 있다고 한다. 결국 그만큼 비료를 더 얻어내는셈이였다.

절약은 곧 생산이며 애국심의 발현이다. 이것을 언제나 심장에 간직하고 방영호동무를 비롯한 군일군들은 지난 시기 여러가지 비료주기방법을 도입해보았다. 그 과정에 이들은 비료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는 과학기술적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해야 겠다는 결심을 다지였다.

여러 단위들의 경험과 성과들을 분석종합하는 과정에 피복처리하는 방법이 착상되였다. 즉시 이 사업에 착수하였다.

실패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것을 자기의 살점처럼 아끼고 사랑하려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이들은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끝에 비료를 피복처리하는 방법을 성과적으로 완성하였다.

엄마전에 군에서 도적인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면 같은 량의 비료를 가지고 정보당 소출을 더 높일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지금 군안의 농장들뿐아니라 여러 단위들에서도 이것을 널리 도입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큼직한 성과만이 리득을 주는것이 아니다. 비록 작은것 같이 보이는것도 많은 단위들에서 절약되는 량을 다 합쳐놓으면 나라에 큰 보탬을 주게 될것이 아닌가.

방 영 진

비료효과성을 높이는
피복처리기술을 받아들여
▷동림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년간 인민경제계획 앞당겨 수행
구장군농기구공장에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에 떨쳐나선 구장군 농기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지난 6월 중순까지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교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공장의 일군들은 혁신적인 안목과 진취적인 일본새를 가지고 돌파구를 열어나가면서 로동자들을 증산돌격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일군들은 정치사업을 앞세워 로동자들이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서 삶의 자욱을 남기도록 이끌어주었다. 이와 함께 설비관리와 기술관리, 원료, 연료보장을 짜고들면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제기있게 해나갔다. 그리고 과학기술이자 생산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렸다. 지배인 리정철동무는 용선로를 개조하기 위한 여러가지 기술혁신안을 내놓고 주물작업반의 기능공들과 지혜를 합쳐가며 힘찬 투쟁을 벌려 원가를 낮추면서 질좋은 쇠물을 뽑아낼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그들은 지칠줄 모르는 사색과 탐구,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두기의 용선로에 아치식재탈이장치를 도입하여 최대한의 실리를 얻을수 있게 하였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중주파유도로를 새로 제작설치하여 농기계부속품들과 농기구들을 마음먹은대로 생산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도 튼튼히 갖추어놓았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감속기와 권양기를 수리정비하여 원료장입용권정기중기를 살려냄으로써 종전보다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원료장입시간을 줄일수 있게 해놓았다. 또한 농기구작업반의 공기함마와 선반, 절단기 등을 수리정비하여 뜨락또르보습과 여러가지 후치보습, 제초기, 호미, 낫 등 농기구들을 팡팡 생산할수 있게 하였다.

용선로작업반의 로동자들은 내화벽돌을 지방원료를 배합하여 생산할수 있는 방법과 용선로벽체를 열방출이 지난 시기보다 적어지게 쌓는 방법을 도입하여 석탄소비량을 절반이상 줄이면서 질좋은 쇠물을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농기구작업반의 로동자들은 더 많은 중소농기구를 생산하여 사회주의농촌에 보내줄 애국의 마음안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매달 맡은 생산과제를 2배이상 넘쳐 수행하는 집단적혁신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공장에서는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6개월이상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긍지와 자랑을 안고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계속혁신, 계속전진, 련속공격전으로 생산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송 창 윤

국방과학전사들의 투쟁기풍으로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단번성공소식으로 온 나라 강산이 환희로 들끓는 속에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나라의 전력생산에 이바지하는 발전설비와 대상설비생산에서 현일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이들의 앞장에는 자신들을 혁명의 핵심부대, 핵심력량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과 기대를 언제나 자각하고 과학기술로 생산의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해가는 기업소기술자들이 서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이들이 화력발전소의 석탄분쇄기용대차차의 열처리공정이 가지는 중요성을 절감하고 고주파열처리설비제작에 뛰여들었을 때 해결해야 할 기술적문제들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이미전에 이러한 설비를 만들어본 경험도, 참고할만 한 자료도 부족하였다. 설비를 이루는 구성요소들이며 그것들을 조합하여 합리적인 작업조건을 보장하는 것도 생소하였다. 더우기 치차이발의 표면을 따라가며 열처리를 진행해야 하는 작업특성으로부터 고주파유도장치를 호텡반과 같은 치차가공설비에 도림해야 하는것도 난문제로 나섰다.

그러나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는 한순간의 주저나 동요도 용납해야 한다는것이 이곳 대안사람들의 변함없는 사상관점이고 일본새였으니 이들은 한걸음의 답보도 없이 설비제작전투에 달라붙었다.

기술발전부기사장 리영환동무는 풍부한 지식과 오랜 현장경험에 기초하여 전력변환장치며 고주파경합변압기, 고주파축전기와 유도자를 비롯한 장치의 구성요소들을 확정하고 설비제작을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기업소의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이 이미 있던 8m호텡반을 치차가공과 열처리에 동시에 리용할수 있게 개조하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를 벌렸다.

소장 박인철동무와 리기천, 김정혁동무를 비롯한 교육위원회 아래단위의 연구사들은 핵심설비인 전력변환장치를 훌륭히 제작해냈으며 4.15기술혁신돌격대의 김영, 김상원, 장문룡동무를 비롯한 기술자들은 맡은 기술과제수행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보다 큰 난관은 앞에 있었다. 조립된 열처리설비들에서 예상치 못했던 현상들이 나타났던것이였다.

각이한 환경과 조건에서 동작하는 과정에 정합변압기며 유도자를 비롯한 요소들에서 고장이 련발했던것이다. 그러나 실패로 인한 고뇌는 있었어도 동요나 비관은 조금도 없었다.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이들은 설비의 CNC화를 하루빨리 다그쳐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되였다.

기초작업조건에 대한 해석을 위해 수십번이나 열처리유도자를 분해, 조립하며 지새운 밤은 그 얼마이며 열처리유도자와 제품사이의 유지거리, 가장 합리적인 가열시간과 랭각수분사각도를 찾기 위해 기울인 사색과 탐구의 나날은 또 얼마인지 모른다. 뜻밖에 일어난 사고로 랭각수뿜프가 고장나자 양수기를 가져다 설치하고 가족과 함께 기대걸에서 한밤을 지새운 아름다운 이야기는 또 얼마나 많은것인가.

이 불같은 심장들이 합쳐져 고주파열처리설비는 드디어 정상가동을 시작하였다.

종전에 비해 치차의 수명을 6~10배나 늘일수 있게 제작된이 열처리설비는 지난 4월에 진행된 제32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치차감속기직장의 4m타닝반 2대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CNC화하고 그 어떤 용접작업도 마음먹은대로 해낼수 있는 CNC곡면용접기를 훌륭히 창안제작한것을 비롯하여 이곳 기술자들의 땀과 노력의 자욱은 기업소의 그 어디서나 찾아볼수 있다.

국방과학전사들의 폭발적인 정신력과 투쟁기풍으로!

이런 각오와 결심으로 또다시 새 출발선에 선 이들에게는 고주파열처리설비를 비롯한 각종 공작기계와 설비들의 CNC화를 실현해야 할 방대한 기술발전목표들이 있다. 그러나 백절불굴의 의지와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피어린 결사전을 벌려 당의 주체적핵무력건설위업을 자랑찬 성과로 받는 국방과학전사들처럼 투쟁해나갈 때 짐명 못할 요새는 없으며 전투장마다에서는 눈부신 창조와 혁신의 새 소식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전해질것이다.

본사기자 심 학 철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

천연생물영양활성제 《봉화산1》호를 받아들인 여러 협동농장들을 돌아보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고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올해의 극심한 가물속에서도 끄떡없이 전진하는 협동농장들이 있다.

최근 농업부문에서 그 생활력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는 천연생물영양활성제 《봉화산1》호를 도입한 단위들이다. 물론 이 단위들보다 상대적으로 기후조건이 불리했던 지대들에서의 가물피해현상은 있었다. 그러나 도입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

천연생물영양활성제 《봉화산1》호를 받아들여 농사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해나간다면 가물피해를 얼마든지 극복할수 있고 어떤 악조건에서도 안전하고도 높은 소출을 거둘수 있다는것이다.

아래의 이야기는 그에 대한 명백한 대답으로 될것이다.

농작물에 좋은 《보약》

우리가 먼저 찾은 곳은 개천시 룡진협동농장이였다.

해설자가 따로 필요없었다. 차창으로 흘러가는 협동벌들의 서로 다른 광경이 모든것을 다 설명해주고있었다.

천연생물영양활성제 《봉화산1》호를 받아들인 밭과 그렇지 않은 밭들이 금을 그은것처럼 명백히 갈라졌던것이다. 송하없이 똑같이 키를 넘게 자란 강냉이포기들, 굵은 대줄기와 넓은 잎새, 척 보기에도 영양상태가 좋아보이는 그 밭이 바로 개천시 룡진협동농장 제3작업반의 포전이였다.

도대체 혹심한 가물이 지나간 땅같지 않았다.

《우리도 놀랄 정도입니다. 이런 가물때 물을 제대로 대주지 못했는데 저절로 이렇게 와짝 크질 않겠습니까. 정말 과학의 힘이 세긴 셉니다.》

판리위원장의 말이였다.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는 우리에게 그는 일명 다수확포전으로 불리우는 이 포전을 담당한 농장원의 《생육조사수첩》을 펼쳐보이는것이였다.

수첩에는 날자별로 기록한 강냉이포기의 생육조사자료가 있었다.

－6월 12일(잎수: 9.5일, 키: 1m, 잎너비: 10㎝)

－6월 26일(잎수: 12일, 키: 1.7m, 잎너비: 14㎝)

…

과학이자 곧 리치이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끔 하는 속성이 바로 천연생물영양활성제에 있었다.

그 비밀은 다름아닌 이 활성제가 뿌리활성제라는것이였다.

나무도 뿌리가 든든해야 아무리 심한 폭풍에도 끄떡없듯이 농작물도 마찬가지이다. 뿌리부리가 든든해야 농작물에 필요한 모든 영양물질을 충분히 빨아들일수 있는것이다. 또 자기를 유지하고 환경에 적응하려는 식물의 속성으로 하여 가물수록 농작물은 뿌리를 더 깊이 땅속에 내리기때문에 땅밑에서 빨아들이는 수분과 영양성분도 그만큼 많다는것이였다.

《듣고보면 간단한 리치같아도 새것을 받아들이는것이 헐치 않았습니다.》

우선 종자처리에서부터 기존 농법을 주장하는 농장원들의 의견에 부딪쳤다고 한다.

그럴만도 하였다. 종자를 적셨다말렸다 이렇게 두번은 반복해야 한다니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랑비되겠는가 하는것이 농장원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였다.

이때 그들앞에 강사로 나선 사람이 있었다. 10여년째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푸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스스로 새로운 활성제개발사업에 모든 정력을 다 바쳐가고있는 어느 한 연구소 소장 리용학동무였다.

그의 강의는 대략 이러했다.

한번 생각해보라. 농작물을 가을한 때부터 종자의 자체영양소비량이 많아진다. 종자를 많은 영양성분을 함유하고있는 이 영양활성제속에 잠그면 분명 튼튼한 싹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지만 농장원들의 고집은 벽창호였다. 무슨 영양활성제란게 색갈부터가 도무지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며 아예 돌아앉는 정도였다. 이때 또다시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 영양활성제가 바로 우리 나라에 흔한 약초들로 만든것이다. 수십가지의 무기 및 유기영양성분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량의 생리활성효소들이 들어있는 약초들을 농작물비배판리에 알맞게 재가공한것이 바로 천연생물영양활성제 《봉화산1》호이다. 그러니 이런 보약을 들이킨 종자가 튼튼하겠는가, 약하겠는가?

대답은 명백했다.

이렇게 한걸음한걸음 농장원들을 깨우쳐가며 그는 때로는 자기들의 실험과정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시범동작을 해가며 새로운 과학농법의 길을 넓혀나갔다고 한다.

하지만 낡은 기존농법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것이 간단한것이 아니였다. 정작 씨뿌리기날자가 늦어지자 실망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어인 일인가. 오히려 예상외로 싹이 빨리 더나왔고 싹튼률도 종전보다 더 높아졌던것이다.

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했는데 대신 복이 차례진것이다. 그 복도 외줄로 찾아오는것이 아니라 승벽내기로 경쟁하듯 찾아왔다.

《봉화산1》호로 종자를 처리하여 직파한 밭들의 강냉이포기들은 이전 시기의 풍정을 많이 거친 다른 밭들의 포기보다 더 빨리 자라고 일색갈과 대굵기가 더 월등했다.

결국 농사는 농사대로 잘되고 로력과 자재는 그것대로 절약되니 꿩먹고 알먹는 격이 아닌가.

좋은 점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사람도 영양상태가 좋은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듯이 천연생물영양활성제 《봉화산1》호를 종자처리는 물론 일덧비료주기 등에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활용하면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극복할수 있고 비바람에도 끄떡없이 서있게 된다는것이 아닌가.

《이것 보십시오. 개꼬리가 나온건 더 말할것도 없고 강냉이 한대에 법씨 두이삭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키운을 쓰며 땅에 뻗친 저 강냉이뿌리만 보아도 다수확에 대한 신심이 차넘칩니다.》

밭농사만 자랑인가, 논농사도 승산있다

이어 우리가 들린 곳은 중산군 풍정협동농장이였다. 한것은 천연생물영양활성제 《봉화산1》호가 간석지논농사에서도 매우 큰 효과를 나타내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때문이다.

그런데 판리위원장 한철동무가 우리에게 하는 인사말이 뜻밖이였다. 뭐니뭐니해도 이삭이 달리는 가을에야 진짜 답이 나오겠는데 너무 먼저 찾아왔다는 눈치였다. 역시 실농군다운 냄새가 폭폭 풍기였다.

《하지만 우리가 찾은 교훈만은 아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겁니다.》

이렇게 말하며 우리를 어느 한 간석지벌로 이끈 그가 《그럼 바다물로 종자처리를 한 이야기부터 할가요?》하는것이였다.

바다물로 종자처리를 하다니?

농작물이 바다물에 의한 염피해를 받는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이런 말은 처음이였다.

그보다 더 반가운것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과학농사를 더 굳게 믿는 그 마음이 농장원들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박고있다는 가슴벅찬 현실이였다.

판리위원장도 처음엔 우리와 똑같은 생각이였다고 한다.

그래서 아예 믿지 않고 모처럼 찾아온 소장동무를 돌려보냈었다며 그는 종자처리를 바다물로 하던 이야기를 꺼내는것이였다.

사실 지금까지 종자를 바다물에 담그면 싹이 나오지 않는것으로 되여왔다. 그런데 농장에 다시 찾아온 리용학동무가 바다물에 영양활성제를 일정한 비률로 풀어 그속에 종자를 잠그었다가 싹을 틔운 경험을 수록한 동화상을 보여주어서야 점점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하였다.

설명을 듣고보니 심본 리해가 되였다. 바다물 그자체에 종자를 담그면 못쓰게 되지만 바다물에 살균역할까지 하는 활성제를 타면 그속에 있던 병원성물질을 비롯한 나쁜 성분들이 제거되기때문에 종자소독제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된다는것이다.

게다가 바다물자체에 유용성광물질이 많은데다가 영양물질까지 첨무되니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농장에서는 시험적으로 5개 작업반들에 도입했다. 결과는 두말할것없이 성공이였다. 그제서야 농장의 모든 작업반들에서 새로운 종자처리열풍이 일어번졌다.

실지 도입해보니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바다물속에서 싹을 틔우니 염전답성이 저절로 강해져 좋아, 포전에서의 모살이가 거의 없어져서 좋아, 뿌리활성이 좋으니 가물에도 끄떡없이 푸르싱싱 잘만 자라 좋아, 이제 장마때 비바람이 들이닥친대도 넘어질 념려도 없었다.

《이렇게 바다물이 농작물이 탈게 빨아들이는 어머니젖처럼 쓰이니 정말 과학으로 흥하는 이 시대가 좋긴 좋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과학을 선뜻 믿으려 하지 않은 자신이 막 후회됩니다.》

이미 이 농장에 써 앞서 천연생물영양활성제 《봉화산1》호를 받아들여 농사에서 큰 덕을 본 단위들도 있다.

우리는 묻고싶다. 이렇게 서로가 앞서거니뒤서거니 하면서 과학농법으로 다수확의 지름길을 열어갈 때 후시 과학보다 재래식농법을 더 믿은탓에 아직까지 앉아봉개는 단위들은 없는지.

있다면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대담하게 과학을 믿고 용감하게 과학농사에 뛰여들자.

* *

과학농법도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여야 하는것인가.

새것의 탄생과 도입은 전통을 동반한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교훈은 훌륭한 과학연구성과도 실정에 맞게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철저히 받아들이면 농사가 잘되고 주먹치기로, 그것도 중도반단하는 식으로 대하면 폭정이밖에 건질것이 없다는것이다.

과학농법은 땅이 아니라 먼저 농사의 주인인 농장원들의 심장속에 먼저 도입되여야 한다. 과학농법의 진수를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실천속에서 드팀없이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갈 때 심지로 그 단위에 과학농법이 도입되였다고 당당히 말할수 있다.

천하유명한 준마도 장수를 만나야 하늘을 난다고 하지 않는가.

그렇다. 과학농법이자 다수확이다. 과학으로 무장한 인간앞에서는 하늘도 머리숙인다.

글 본사기자 박옥경
사진 본사기자 리명남

－개천시 룡진협동농장에서－

－중산군 풍정협동농장에서－

만리마시대에 더 활짝 꽃펴나는 미풍

위훈창조의 낮과 밤은 이렇게 흐른다

박천고치생산사업소 청년작업반에서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우리 당이 아끼고 내세워주는 영예군인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돌봐주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계속 발휘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차넘치게 하여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국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바친 영예군인들을 잘 돌봐주는것을 우리 시대 인간들의 마땅한 본분으로 간직한 김일성종합대학 수학부 교원 리광선동무는 오랜 세월 변함없는 의리의 길을 걷고있다.

20여년전 3월 정천구역 록교1동 15인민반에 특류영예군인녀성이 살고있다는것을 알게 된 리광선동무는 3.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영예군인의 집에 찾아가 축하해준 때로부터 뜨거운 혈육의 정을 기울이고있다.

평범한 나날에는 물론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시기에도 언제나 영예군인의 건강과 가정생활에 마음을 쓰며 육친의 정을 기울인 리광선동무였다. 영예군인의 자식들의 얼굴에 자그마한 그늘이 질세라 새옷과 학용품도 마련해주고 그들이 군사복무를 마치고 돌아와 결혼식을 할 때에는 결혼상도 차려주며 한식솔처럼 지내는 리광선동무의 소행은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내고있다.

평양철도국 평양역 려객중대 안내원 김현향동무도 20여년세월 모란봉구역 긴마을1동 10인민반에 사는 특류영예군인 윤중수동무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고있다.

꽃나이처녀시절 평양역에서 친척을 바래워주려고 나왔던 윤중수동무와 인연을 맺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는 영예군인의 친딸이 된 심정으로 온갖 지성을 다하고있다. 운신을 못하는 영예군인의 치료를 위해 보약재와 입맛을 돋구는 음식들도 마련해가지고 매일과 같이 찾아가 치료사업을 도와주어 그가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영예군인의 생일에는 남편과 함께 성의껏 마련한 양복천과 식료품도 안겨주고 노래도 불러주면서 락천적으로 생활하도록 고무해주었으며 영예군인 자식들의 결혼식에도 혈육의 정을 따뜻이 기울여주었다.

오랜 세월 영예군인을 직극 돕고있는 사람들속에는 금야군 농기계작업소 부원 한국모동무도 있다.

군인민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나날에 음 228인민반에서 살고있는 특류영예군인 최명복동무를 알게 된 때로부터 20여년세월 그의 건강과 생활, 자식들에게 기울인 정은 서로 돕고 이끄는 우리 사회의 대풍모를 뜨겁게 엿볼수 있게 한다.

조선의학협회 평양시위원회 의료품기술교류소 의사 김혜정동무는 15년전부터 룡성구역 어은동 34인민반에서 사는 특류영예군인 윤성철동무를 친누이의 심정으로 돌봐주고있다.

군사복무시절 윤성철동무를 알게 된 때로부터 그의 혁명동지, 전우가 되여 혁명적군인정신을 계속 발휘해나가도록 직극 도와준 김혜정동무는 영예군인이 시를 쓰기로 결심하였을 때에는 누구보다 기뻐하면서 많은 도서들도 안겨주고 세바퀴차에 태워 흥흥히 번모되는 수도의 모습도 보여주면서 기백있는 시를 창작하도록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락원백화점 로동자 리해심동무도 영예군인을 도와주는것은 새 세대의 응당한 도리라고 하면서 대동강구역 문수1동 47인민반에 사는 특류영예군인 최수길동무와 그의 가정을 직극 도와주고있다.

10년전 세바퀴차를 타고가는 영예군인을 집에 데려다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자기를 돌봐주어야 할 안해도 직장일을 하도록 하였다는것을 알게 된 리해심동무는 영예군인의 정신세계에 감동을 금치 못하며 오랜 세월 뜨거운 혈육의 정을 기울이고있다.

이밖에도 대동강구역 의약품관리소 로동자 김명희,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병원 연구사 김국철, 김책공업종합대학체육단 학생 리영성, 남포시의약품관리소 부원 리정렬, 남포수출입품검사검역소 소장 한영식, 무명군인민위원회 부원 공승희, 강동군도서관 사서 류정순, 청진시 송평구역편의봉사사업소 로동자 최국향동무를 비롯한 각지의 수많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성심성의로 도와주고있다.

본사기자 신현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은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고 주체의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전투에 청춘의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바쳐야 합니다.》

박천고치생산사업소 청년작업반원들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높은 누에고치생산성과로 맞이할 불같은 열의밑에 증산돌격전을 벌리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청년작업반에서는 올해에 지난해보다 더 많은 누에고치를 생산할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높아진 누에고치생산목표를 점령하자면 무엇보다도 뽕밭의 지력을 높이고 그 비배관리를 짜고들어야 하였다.

작업반장 강경옥동무를 비롯한 청년작업반원들은 몸칠에 들어서자 지난해에 떼어들어 저장하였던 풀거름더미들을 파헤치고 진거름을 팔고루 섞어 정보당 수십톤씩 포전들에 실어내기 위한 전투를 벌리였다.

청년작업반전문을 일떠세우는 공사를 하면서 청천강하류에 위치하고있는 수십정보의 드넓은 포전들에 전호식으로 구뎅이를 파고 거기에 거름을 채운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사회주의경쟁이 선포되고 뽕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사업소지배인 김창룡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뽕밭비배관리에 떨쳐나선 청년들에게 무엇보다 식사를 마련해주기 위해 신발창이 닳도록 뛰여다니였다.

장수려, 현미화동무를 비롯한 사업소일군들의 안해들도 가정들에서 별식을 성의껏 준비해가지고 현지에 나와 청년돌격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이렇게 땀흘려 뽕밭비배관리를 진행한 보람이 있어 수십정보의 뽕밭에는 푸른 뽕잎들이 한껏 잎새를 펼치게 되였다.

청년작업반에서는 곧 누에치기에 들어갔다.

김향금, 박금아, 한미향동무를 비롯한 판리공들은 알에서 깨여난 어린누에들에 대한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면서 누에고치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게다가 바다물자체에 유용성광물질이 많은데다가 영양물질까지 첨무되니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농장에서는 시험적으로 5개 작업반들에 도입했다. 결과는 두말할것없이 성공이였다. 그제서야 농장의 모든 작업반들에서 새로운 종자처리열풍이 일어번졌다.

실지 도입해보니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바다물속에서 싹을 틔우니 염전답성이 저절로 강해져 좋아, 포전에서의 모살이가 거의 없어져서 좋아, 뿌리활성이 좋으니 가물에도 끄떡없이 푸르싱싱 잘만 자라 좋아, 이제 장마때 비바람이 들이닥친대도 넘어질 념려도 없었다.

《이렇게 바다물이 농작물이 탈게 빨아들이는 어머니젖처럼 쓰이니 정말 과학으로 흥하는 이 시대가 좋긴 좋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과학을 선뜻 믿으려 하지 않은 자신이 막 후회됩니다.》

이미 이 농장에 써 앞서 천연생물영양활성제 《봉화산1》호를 받아들여 농사에서 큰 덕을 본 단위들도 있다.

우리는 묻고싶다. 이렇게 서로가 앞서거니뒤서거니 하면서 과학농법으로 다수확의 지름길을 열어갈 때 후시 과학보다 재래식농법을 더 믿은탓에 아직까지 앉아봉개는 단위들은 없는지.

있다면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대담하게 과학을 믿고 용감하게 과학농사에 뛰여들자.

* *

과학농법도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여야 하는것인가.

새것의 탄생과 도입은 전통을 동반한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교훈은 훌륭한 과학연구성과도 실정에 맞게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철저히 받아들이면 농사가 잘되고 주먹치기로, 그것도 중도반단하는 식으로 대하면 폭정이밖에 건질것이 없다는것이다.

과학농법은 땅이 아니라 먼저 농사의 주인인 농장원들의 심장속에 먼저 도입되여야 한다. 과학농법의 진수를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실천속에서 드팀없이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갈 때 심지로 그 단위에 과학농법이 도입되였다고 당당히 말할수 있다.

천하유명한 준마도 장수를 만나야 하늘을 난다고 하지 않는가.

그렇다. 과학농법이자 다수확이다. 과학으로 무장한 인간앞에서는 하늘도 머리숙인다.

글 본사기자 박옥경
사진 본사기자 리명남

위훈창조의 낮과 밤은 이렇게 흐른다

박천고치생산사업소 청년작업반에서

청년작업반원들은 뽕잎따기와 뽕밭김매기, 누에치기 등 모든 작업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켰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청년작업반원들은 더 많은 누에고치를 생산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당정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어느날 청년작업반앞에는 수십통의 누에가설막을 3일동안에 뽕밭주변에 일떠세워야 할 과제가 제기되였다. 문제로 되는것은 누에가설막을 일떠세우는데 동원시킬수 있는 로력이 부족한것이였다.

청년들은 분조호상간 사회주의경쟁을 벌리였다. 하루에 5동의 누에가설막을 일떠세우는 분조도 있었다. 이들은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면서 누에가설막들을 일떠세웠다.

전투장에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목소리가 높이 울리였다.

당세포위원장 김일철, 청년동맹 초급단체비서 김동철동무를 비롯한 초급일군들은 앞세를 메고 돌파구를 열어나가면서 대중을 위훈에로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불과 3일동안에 수십동의 누에가설막을 일떠세우고 누에고치생산전투에 들어가게 되였다.

청년작업반전문진실에 동원되였던 20여명의 제대군인들이 합세하였다.

제대군인들은 청년작업반원들과 힘을 합쳐 낮에는 뽕잎을 따들여 누에치기를 하고 저녁과 새벽에는 뽕밭비배관리를 하면서 낮과 밤이 따로 없이 건장한 전투를 벌리였다.

애로와 난관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청년들은 누구도 현장을 뜨지 않고 누에고치생산에 청춘의 열정과 더운 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이들의 심장에 세차게 높뛰는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더 많은 누에고치를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당정책을 결사관철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였다.

인적드문 여기 청천강하류의 드넓은 뽕밭에서는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청춘들의 위훈창조의 낮과 밤이 흐르고있다.

특파기자

부강한 내 조국에 기쁨을 더해주는 경사

평양산원에서 13일 474번째 세쌍둥이가 퇴원하였다.

세쌍둥이의 어머니인 평안북도 정주시의 오정향녀성은 올해 2월 평양산원에 입원하여 다태자산모들에게 베푸는 우리 당의 은정속에 갖가지 보약과 영양제, 최상의 의료상방조를 받으며 아들 세쌍둥이를 순산하였다.

지난 4월 26일에 태어나 사랑의 보육기에 보금자리를 편 아기들은 의료집단의 관심속에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났다.

태여날 당시 첫째는 2.07kg, 둘째는 2.06kg, 셋째는 1.79kg이였던 아기들의 몸무게가 이곳 일군들과 의사, 간호원들의 지극한 정성에 의하여 퇴원할 때에는 4kg이 훨씬 넘었다.

산원의 의료일군들은 어머니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정히 받들어 세쌍둥이의 건강회복과 정상적인 성장발육을 위해 수십차에 걸치는 협의회를 진행하고 즉시적인 치료대책을 세우면서 70여일동안 정성을 기울였다.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정주시의 정범한 녀성에게 돌려지는 당의 은정을 매일, 매시각 체험하며 오정향녀성과 그의 가족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더욱 가슴뜨겁게 절감하였다.

세쌍둥이에게 사랑의 은장도를 보내주시고 부모에게까지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선물을 가슴 한가득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세쌍둥이의 부모와 온 가족은 삼가 큰절을 드리였다.

백두산대국의 자주적존엄과 강용한 기상, 최강의 국력을 만방에 떨치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만리마속도로 전진하는 내 조국에 기쁨을 더해주는 행복동이들의 밝은 앞날을 만사람이 축복해주었다.

세쌍둥이의 부모와 가족들은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며 아이들을 선군조선의 억센 총대감들로 키울 결의를 가다듬었다.

제2차 평양대동강맥주축전이 진행된다

제2차 평양대동강맥주축전이 평양의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서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식당배 《대동강》호와 부두주변에서 진행되는 이번 축전에서는 대동강맥주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1번부터 7번까지의 맥주, 새로 개발한 밀맥주와 함께 여러가지 료리를 봉사하게 된다.

축전기간 세계적인 명음료로서 독특한 맛과 향기를 가진 대동강맥주의 여러 품종들의 진미를 갈라내게 하는 맥주맛보기경기가 진행되며 손님들이 수도 평양의 아름다운 야경을 보며 유쾌한 시간을 보낼수 있는 《대동강》호의 유람봉사도 있게 된다.

7월 26일부터 8월말까지 진행되는 제2차 평양대동강맥주축전은 당의 은정속에 우리 인민들이 누리는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대동강반에 펼쳐보이게 될것이다.

메히꼬로동당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리까르도 깐뚜 가르싸 전국조정위원회 조정자를 단장으로 하는 메히꼬로동당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 고매한 덕망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감상록에 조선인민과 세계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의 생애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고 썼다.

이밖에 대표단은 김일성종합대학과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육아원, 애육원 등을 참관하였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팔레스티나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9일 팔레스티나국가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마흐무드 아빠스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마동희대사가 정중히 전하였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달해줄것을 부탁하였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팔레스티나와 조선사이의 친선관계는 야씨르 아라파트대통령과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께서 마련하여주신 력사적관계이다.

조선을 방문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의 접견을 받던 영광의 나날을 오늘도 잊지 않고있다.

조선인민이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언제나 지지해주고있는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한다.

말라리아의 날에 즈음한 행사 진행

말라리아의 날에 즈음한 행사가 13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보건성, 사회단체, 출판보도부문,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세계보건기구, 유엔아동기금림시대리대표들을 비롯한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 여러 나라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행사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올해 세계보건기구가 《말라리아를 영원히 끝장내자》를 주제로 제기함으로써 인류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대한 위생지식을 잘 알고 이를 예방치료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참가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이어 우리 나라에서 말라리아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정형과 2017년 말라리아통제활동방향이 통보되였다.

참가자들은 말라리아예방에 관한 록화전집물을 시청한 다음 학생위생선전대공연을 관람하였다.

한편 이날 각급 위생선전판들과 치료예방기관들에서는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한 선전활동이 있었다.

총련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도착

신영근학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13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 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오사까조선고급학교 교장 윤성진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13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천리마시대를 빛내인 전세대들처럼 모두가 만리마시대의 선구자가 되자

지하막장에 울리는 만리마의 발굽소리

신평광산 본산갱 김철진채광소대의 소대원들

신평광산 본산갱의 김철진채광소대는 소대원의 절반이상이 막장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신입대원들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나 그들의 착암솜씨는 오랜 기능공들도 혀를 찰 정도로 능숙하다.

로동년한도 오래지 않고 아는것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았던 이들이 어떻게 되여 오늘은 광산이 내세우는 기준소대로, 만리마선구자대회장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선구자집단으로 자라날수 있었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이 아니라 일편단심 백옥같은 충정으로 당과 수령을 받드는 위대한 인민의 정신력을 믿고있으며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창조력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고있습니다.》

몇해전 김철진채광소대에 여러명의 청년들이 배치되여 왔다. 그들은 모두 막장일을 전혀 해보지 못한 《애숭이》들이였다.

다음날 소대장과 소대원들의 뒤를 따라 갱으로 향하는 그들의 마음은 하나같이 들떠있었다. 광부로서의 첫날을 두고두고 추억하고싶었다.

그들이 갱입구에 도착하였을 때였다.

막장으로 곧추 들어갈줄 알았던 소대원들이 삽을 하나씩 쥐고 갱뒤쪽에 있는 산등성이로 오르는것이였다. 이어 소대원들은 구뎅이를 파기 시작하였다. 소대장이 돌고온 나무모들을 소대원들에게 하나씩 나누어주는것을 본 신입대원들이 영문을 몰라하며 말하였다.

《소대장동지, 우리도 빨리 들어가서 작업준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른 갱들에 뒤떨어지겠습니다.》

그들의 심정이 피해가 된다는듯 빙그레 웃으며 김철진소대장이 이야기하였다.

《제손으로 나무를 심고 가꿀줄 알아야 누가 보지 않는 수천척지하막장에서도 깨끗한 광심을 바쳐 일할수 있거던.》

신입대원들의 가슴은 뭉클 젖어들었다.

그들은 갱주변에 펼쳐진 푸른 숲을 둘러보았다. 이제는 키높이 자란 저 나무들에 얼마나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들이 깃들어있는가를 조금이나마 알수 있었다.

이렇게 첫발을 떼였지만 뭐니뭐니해도 막장일에는 착암기능이 따라서야 했다.

욕망만 가지고는 막장일을 제대로 해나갈수 없는것이다.

어느날 김철진소대장이 낡은 착암기 2대를 메고 신입대원들앞에 나타났다.

(낡은 착암기는 왜 가져왔을가?)

그들의 의심을 풀어주려는듯 소대장이 이야기하였다.

《채광공에게는 착암기가 무기나 같소. 오늘부터 나와 함께 이 착암기를 한번 수리해보자구.》

그들을 위한 격식없는 기술학습이 시작되였다. 교대를 마치고 한시간씩 혹은 막장에서 실지 착암기를 돌려가면서 구조와 동작원리들을 하나하나 배워주는 김철진소대장과 류혁철, 량성남동무를 비롯한 오랜 착암공들의 노력에 의해 신입대원들의 수준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그러나 이 과정은 쉽지 않았다.

기술학습에 시간을 소비하다나면 하루생산실적이 떨어지지 않겠는가고 우려하는 소대원들이 있었는가 하면 실적부터 올려놓은 다음 기술학습을 진행하는것이 어떻겠는가고 의견을 제기하는 소대원들도 있었다.

김철진동무는 무거운 마음으로 광산사무청사에 걸려있는 사회주의경쟁도표판앞에 섰다. 제일 앞서나가던 자기 소대를 다른 단위들이 경쟁적으로 따라서고있었던것이다.

(이러다가 소대원들의 생산열의를 떨어뜨리지 않을가.)

이때 누군가가 그의 뒤로 다가서는것이였다. 광산지배인이였다.

《소대장동무의 마음을 나도 알고있소. 만리마를 하루 타고 그만두겠소. 지휘관이야 뭐니뭐니해도 앞을 내다볼줄 아는게 기본이지.》

김철진동무의 마음은 든든해졌다.

그는 더욱 박차를 가하여 광물생산전투와 기술학습을 다같이 밀고나가면서 소대원들의 생활을 만형, 맏오빠의 심정으로 세심히 돌봐주었다. 소대장의 뜨거운 사랑과 헌신적인 노력은 소대원들의 정신력을 비상히 높여주었다.

소대에서는 지난 3월초부터 채광작업에 발파효률을 높일수 있는 집초분리식발파방법을 받아들여 종전보다 1.5배의 광량을 확보할수 있게 하였고 강철진, 송금일동무를 비롯한 10여명의 소대원들을 능숙한 착암수들로 키워냈다.

김철진채광소대는 지난 5월 15일까지 년간계획을 완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온 광산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소대로, 만리마를 타고 힘차게 내달리는 선구자집단으로 자라나게 되였다.

그들의 뒤를 이어 광산에는 혁신자집단이 날을 따라 늘어났다.

김일환동무가 중대장으로 사업하고있는 중산갱에서는 굴진소대원들이 년간 굴진계획을, 채광소대원들이 상반년 채광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함성범동무가 대장으로 사업하는 청년돌격대에서는 추동지구에 전망이 큰 광량을 확보하고 광물증산전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땅속으로 뻗어간 막장길은 여러 갈래여도 그것은 만리마선구자대회장으로 향한 광부들의 마음과 하나로 잇닿아있었다.

만리마선구자대회에 우리 신정광산 광부들의 빛나는 로력적선물을!

이런 마음을 안고 오늘도 신정광산의 로동계급은 지하막장들에 만리마의 발굽소리를 힘차게 울려가고있다.

본사기자 리신향

그날의 수송전사들이 우리를 지켜본다

남포객화차대 일군들과 종업원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중요진구들로 기관차들이 달린다. 만짐을 실은 화차들을 끌고 달리는 기관사들에게 사람들은 손을 흔들어 격려를 보낸다. 그러면서도 꼬리긴 차량들에 숨배인 검차원, 수리공들의 노력을 헤아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러나 남포객화차대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속에는 남다른 긍지가 간직되여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불처럼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남포객화차대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지난해 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에 이어 뜻깊은 올해에도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더 높이 지펴올리고있다.

용접의 불보라 날리는 화차수리현장들과 공작기계의 통음높은 부속품가공현장들, 낮에도 밤에도 검사마치소리가 가락맞게 울리는 역구내선들…

온 객화차대가 새 기록창조를 위한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신남포렬차검사중대의 수리소대원들과 검차원들이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도착 및 출발화물차량들에 대한 검사를 신속정확히 진행하여 렬차의 무사고운행을 믿음직하게 보장하고있을 때 강서렬차검사중대의 수리소대원들도 필요한 부속품들과 기공구들을 자체로 해결하며 화차수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소대장 박정남동무와 리영식, 현정철동무를 비롯한 소대원들은 각종 전용화물차량들의 수리정비를 짧은 시간에 어김없이 해내군 하였다.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불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던 어느날 강선수리소대앞에는 중요물동운반용화차 2량을 시급히 수리해야 할 긴급과제가 나섰다.

전인보와 제동변련결대, 차체 등 수리해야 할 부분이 한두곳이 아니였다.

하지만 누구도 주저하지 않았다. 전인보수리를 맡아나선 소대장 리일송동무가 용접의 불보라를 날리기 시작했다. 뒤미처 약속이나 한듯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차체와 부분품수리를 부리나케 다그치는 도영식동무와 최동철, 여순일, 김기남동무들…

화차를 한시라도 빨리 떠나보내야 사회주의건설의 중요전구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될수 있다는 한마음으로 그들은 첫번째 차량수리를 계획된 시간보다 훨씬 앞당겨 끝냈다. 두번째 차량수리시간은 첫번째보다 절반으로 축당겨졌다.

누구나 역시 천리마가 솟구쳐오른 강선땅 수송전사들의 일본새가 다르다고 찬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때 리일송동무는 오늘의 만리마시대에 인민경제의 선행관의 활력이자 나라의 전진속도가 아니겠는가고 하면서 말을 이었다.

《온 세계를 경탄시켰던 천리마시대로부터 세월은 많이 흘렀습니다. 수송전사들의 대도 바뀌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수송전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있다는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있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말아야지요. 꼭 만리마기수의 영예를 떨쳐나라의 선행관을 지켜선 수송전사들의 애국의 바통을 이어가렵니다.》

이것은 그의 심정만이 아니라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힘찬 진군을 다그치는 남포객화차대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하나같은 의지이고 신념이다.

본사기자 김치곤

작아도 인민이 아는 공장

염주고려약공장에서

《우리 염주고려약공장에서 만든 의약품이 제일이예요.》

《정말 작아도 없어서는 안될 공장입니다.》

읍거리의 한 약국을 나서며 염주군주민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이끌려 우리가 가닿은 염주고려약공장은 크지 않았다. 공장의 생산공정도 보기에는 단순했다. 하지만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마음은 더없이 뜨겁고 진실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은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혁명적기풍입니다.》

염주고려약공장에서 우리가 받은 깊은 인상은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이였다. 날이 갈수록 고려약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있다고, 자기들의 일터는 인민을 위한 중요한 초소라고 입버릇처럼 외우는 공장종업원들.

인민이 즐겨찾고 실제로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제품에 우리의 애국심이 비낀다.

이것은 이 공장 지배인 번영일동무가 종업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다.

하기에 지난 기간 자체의 힘으로 공장의 거의 모든 설비들을 개조하여 제품의 질을 부단히 높여온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올해 첫 전투에 진입하면서 기술혁신의 봉화를 더 높이 추켜들었다.

지배인이 몇해전에 개조한 알약기를 보다 효률적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정력을 쏟아붓고있을 때 공장기술집단은 고려약원료의 분말도를 더욱 높이고 생산을 활성화할수 있는 기술혁신안을 창안하여 현장에 도입하였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더 높은 생산성과로 빛내이자!

공장속보판에 나붙은 이 글발에 이곳 종업원들의 지향과 열정이 비껴있다.

늘 공장에 붙어살다싶이 하면서도 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종업원들의 생활에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늘 마음을 쓰는 지배인,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고야마는 완강한 실천력으로 생산설비들을 개조하고 만가동의 동을 올린 기술자들, 하루계획을 못하고는 발편잠을 잘수 없다고 하며 두툼, 세툼씩 일감을 맡아하면서도 만족을 모르는 녀성로동자들,

만리마선구자대회장을 향하여 내달리는 그들모두는 이처럼 한마음한뜻이였다.

언제인가 감자기 출장길에 올랐던 번영일동무가 고려약과 관련한 참고서를 사무실에 그냥 두고 떠났다가 도중에서 되돌아온 일이 있었다. 그날 기껏해서 이틀 걸릴 출장인데 그렇게 극성인가고 혀를 차는 종업원들에게 번영일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강계고려약공장에서처럼 질좋은 고려약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보여드리고싶은것이 나의 소원이요.》

이것은 그만이 아닌 공장종업원 모두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다.

올해에도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런 지향을 안고 공장앞에 말겨진 수많은 입감들을 해제끼는 속에서도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많은 의약품들을 생산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비록 설비들은 소박하고 종업원들은 많지 않아도 불같은 충정과 애국의 열정이 차넘치는 일터에서는 반드시 위훈이 창조되는 법이다.

이것이 평범한 염주고려약공장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받은 제일 깊은 인상이였다.

본사기자 리경일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맹산군목재일용품생산협동조합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축하무대에 오른 혁신자부부

해주련결농기계공장 가공직장 부부선반공인 김충혁, 한화옥동무들

얼마전 해주련결농기계공장에서는 혁신자축하모임이 있었다. 여러 종목들이 오른 무대에서 이채를 띤것은 공장의 이름난 혁신자부부인 가공직장 선반공들인 김충혁, 한화옥동무들이 부른 혼성2중창이였다.

우리는 언제나 즐겁게 노래부르며 나만히 아침마다 즐겁게 일터에 나가네라는 노래에서처럼 날마다 어깨나란히 출근도 같이하고 더 많은 농기계를 생산하기 위해 함께 애써온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삶의 보람과 가치는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집단의 사랑과 믿음을 받으며 사는데 있습니다.》

일터에서는 소문난 혁신자들이고 집에서는 다정한 원앙새부부인 그들에 대해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있다. 쉽지 않은 부부이라고…

근 20년전 알뜰기대에서 일하면서 정들고 마음이 통해 그들은 한가정을 이루었다. 일생을 같이할것을 약속하던 날 그들은 맹세했다. 한생 정든 일터를 뜨지 말고 혁신자부부로 삶을 빛내일것을…

두 자식의 아버지, 어머니가 된 오늘에도 그들은 서로 위해주고 힘을 보태주며 첫사랑을 속삭이던 그때처럼 한모습으로 살고있다.

김충혁동무는 가공직장 작업반장이다.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는 그의 헌신적일본새는 늘 작업반원들을 위훈에로 떠밀어준다. 그의 안해인 한화옥동무는 같은 작업반 선반공이다. 그 역시 열정적이고 속이 깊다.

작업반에 맡겨진 작업과제를 놓고 김충혁동무가 마음을 쓸 때면 한화옥동무가 말없이 어려운 일감을 맡아나서고 한화옥동무가 부속품가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애를 태울 때면 김충혁동무가 높은 기술과 경험으로 부족점을 퇴치해주군 한다.

언제인가 낮에 밤을 이어 생산전투를 벌리느라 눈에 피발이 선 그들부부를 직장장이 억지로 등을 떠밀어 들여보낸적이 있었다. 그런데 잠시후 일터에서 귀에 익은 선반기소리가 다시 울리였다. 다가가보니 집에 들어간줄 알았던 그들부부가 다시 선반을 잡고 부속품을 깎고있었다.

《사람들도 참…》 하고 더 말을 못하는 직장장에게 한화옥동무는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일이 곧 휴식이고 기쁨이랍니다.》

그들부부에게 있어서 매일같이 깎아내는 부속품은 단순한 가공품이 아니였다. 농민들을 힘든 농사일에서 해방시켜주시려고 두차례나 공장에 찾아오시여 로고를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을 풀어드리기 위해 애쓰는 그들부부의 깨끗한 충정의 결정체였다.

지난 4월 어느날이였다.

취업없이 돌아가던 김충혁동무의 선반이 갑자기 동음을 멈추었다. 낮에 밤을 이어 전투를 벌리느라 전동기에 과부하가 걸렸던것이다. 즉시 고장난 전동기를 등에 지고 어느 한 기계공장으로 떠나려던 김충혁동무는 주저하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의 병을 애써 잠추며 일손을 다그치고있는 안해의 정상이 마음에 걸렸던것이다. 그때 남편의 등을 떠밀며 한화옥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부부도 만리마를 타야 할게 아니예요. 전 일없으니 어서빨리 떠나세요.》

바로 이런 마음에 떠밀려 단 하루만에 선반을 다시 살려냈을 때 그들부부의 기쁨은 얼마나 컸던가.

몸은 선반곁에 있어도 언제나 마음을 농장벌에 두고 사는 그들이다.

그들의 열정과 노력이 숨배인 농기계들은 협동벌을 누비며 논과 밭을 갈고 다 익은 농작물들을 떠여들이고있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함께 지켜간다는 자각이 그들부부를 언제나 위훈에로 떠밀어주고있는것이다.

축하무대에 오른 혁신자부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생각했다.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 가사보다 국사를 더 귀중히 여기고 당을 받드는 길에서 마음도 발걸음도 함께 하는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본사기자 리건일

애국충정의 자욱을 새겨가며

철산군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림혁수동무

위대한 수령님들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받들어모시고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안고 생의 순간순간을 아름답게 수놓아가는 사람들속에는 철산군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재배공 림혁수동무도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몇해전 군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그는 생각이 많았다.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뗀 그에게는 불멸의 꽃재배와 관련한 아무러한 경험도 없었던것이다. 그때 이런 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기라도 한듯 군당위원회책임일군과 온실일군은 우리 철산땅에 태양의 꽃바다를 아름답게 펼쳐가겠다는 각오와 정열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낼수 있다고, 동무가 선 초소는 절세위인들의 존함을 모신 태양의 꽃을 가꾸는 성스러운 초소라고 적극 고무해주었다.

절세위인들의 존함을 모신 태양의 꽃을 가꾸는 성스러운 초소!

일군들의 말을 되새길수록 그의 가슴속에는 언제나 마음을 백두산에 두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혁명전통교양의 거점답게 더 훌륭히 꾸리는 사업과 절세위인들의 존함을 모신 태양의 꽃을 활짝 피우는데 온갖 지성을 바쳐가는 어머니 황은희, 아버지 림춘평의 모습이 더욱 뜨겁게 새겨졌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불멸의 꽃들을 키워간다는 숭고한 자각을 안고 분발해나섰다. 불멸의 꽃재배와 관련한 도서들을 한장한장 번지며 밤을 지새웠고 수매리길을 걸으며 앞선 단위들을 찾아가 좋은 경험을 이악하게 배웠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기 위한 사업에서는 한점의 티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온실을 더 잘 꾸릴것을 결심하고 진실에 필요한 자재들도 도맡아 해결하였다. 그리고 가정에서 많은 지원물자들을 마련하여 전설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도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드는 길이라면 그는 누가 알아주건말건 변함이 없이 충정의 마음을 바쳐왔다.

백두산칼바람에 몸을 맡고 백두대지에 대대손손 물려줄 조국의 만년재부를 일떠세움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자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호소를 전달받았을 때에도 그랬다.

가정살림이 풍족해서가 아니였다. 청년들의 발걸음속도가 높아야 조국의 전진속도도 빨라진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희상최대의 믿음을 가슴깊이 새기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 떨쳐나선 청년돌격대원들을 위해 무엇을 아끼겠는가고 하면서 림혁수동무는 그들을 위해 온갖 지성을 바치였다. 그는 언제나 청년돌격대원들과 숨결을 같이하며 수년세월 한해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발전소건설을 지원하였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과 북부철길개건보수전투장을 비롯한 대고조적전장에도 아낌없는 지성을 바치는 애국적소행을 발휘하였다.

하지만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자기가 어머니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에 참가하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행복을 지닐줄 꿈엔들 생각이나 했으랴.

그럴수록 보답의 일념은 더 뜨겁게, 더 세차게 분출되였다.

불타는 애국충정의 마음안고 그는 군안의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도와주는 미풍을 더 활짝 꽃피웠다.

어찌 그뿐이랴. 혁명의 군복을 입고 조국보위초소로 떠난 동생을 위하는 심정으로 그는 부모들과 함께 원군사업에 적극 떨쳐나섰다. 많은 원호물자를 마련하여 보내주던 날들은 림혁수동무의 가슴속에 인민군대가 강해야 청춘의 행복도 꽃피우고 조국의 미래도 지킬수 있다는 고귀한 진리를 다시금 새겨안게 한 나날이기도 하였다.

그는 말은 본신혁명임무수행과 함께 사회와 집단, 인민군군인들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며 자기의 재능한 량심을 바치였다.

림혁수동무는 선군혁명령도의 천만리길을 걸고걸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높으신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가며 오늘도 애국충정의 한길을 꿋꿋이 이어가고있다.

본사기자

가슴속에 새겨진 참된 당일군의 모습

선교구역 무진1동 34인민반 리신선녀성이 들려준 이야기

사람들은 보통때보다 어려운 때 일군의 됨됨을 더 잘 알게 된다.

선교구역 무진1동 34인민반 리신선녀성의 가슴속에는 중요대상건설장에서 일하다가 뜻밖에 상한 남편을 치료하고 돌보는 나날에 알게 된 한 당일군의 참모습이 새겨져있다. 그 일군이 바로 인민봉사총국 당위원회 위원장 김광성동무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이 위대한 사상과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굳게 뭉쳐진 우리의 일심단결은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큰 재부입니다.》

리신선녀성의 추억속에 자리잡고있는 김광성당위원장과 관련한 뜨거운 사연들은 어떤것인가.

수술전야

리신선녀성의 남편인 인민봉사총국산하 건설사업소 2직장 로동자 주학수동무의 병은 위급했다. 수술준비를 서두르는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의료일군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어려있었다.

병원에 달려온 지배인을 비롯한 사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수술이 잘될것이라며 녀인을 위로하고있었다.

이때 문이 열리더니 총국당위원회일군들이 들어섰다.

《의사선생님들과도 토론이 있었는데 신심을 가지십시오. 총국당위원장동지가 당부하여 수술립회를 서자고 왔습니다.》

녀인은 불시에 목이 짝 메여올랐다.

남편이 대상건설장에서 상했다는 급보를 받았을 때에도 지체없이 중앙병원으로 후송하도록 승용차를 보냈던 당위원장이였다.

의료일군들의 뜨거운 정성과 집단의 각별한 관심은 기적을 낳았다. 2차수술까지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주학수동무는 소생하였다.

진정을 안고 료양소로

(어찌면 이렇게 세심할가.)

이것은 방금 총국당위원회 선전선동부의 한 일군이 전해주고간 료양권을 앞에 놓고 주학수동무의 부부가 더듬은 뜨거운 생각이였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당위원장 김광성동무는 친자식을 료양소로 보내는 부모의 심정으로 더 위해줄것이 없겠는가를 따져가면서 필요한 물자들을 하나하나 마련해주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삼천군의 료양소로 떠나는 승용차에는 지성어린 각종 물자들이 가득 실리게 되였다.

료양소에로 향한 차의 경적소리는 그들의 가슴속에 잊을수 없는 메아리로 지금도 울리고있다.

세바퀴차에 비낀 사연

주학수동무와 관련한 협의회만도 얼마나 열렸는지 모른다.

어느 명절을 앞두고 열린 협의회에서였다.

당위원장은 먼저 세바퀴차를 마련하는 일을 자기가 맡아나섰다.

《늘 침상에 누워있던 그가 최근에 병이 현저히 호전되여 앉을수 있게 되였다고 하니 세바퀴차가 무엇보다 필요할거요.》

당위원회 부위원장 통명철동무를 비롯한 다른 일군들도 한결같이 말하였다.

이때 문이 열리면서 주학수동무의 부부가 들어섰다. 그들은 한가정을 이루었다. 일생을 같이할것을 약속하던 날 그들은 맹세했다. 한생 정든 일터를 뜨지 말고 혁신자부부로 삶을 빛내일것을…

두 자식의 아버지, 어머니가 된 오늘에도 그들은 서로 위해주고 힘을 보태주며 첫사랑을 속삭이던 그때처럼 한모습으로 살고있다.

김충혁동무는 가공직장 작업반장이다.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는 그의 헌신적일본새는 늘 작업반원들을 위훈에로 떠밀어준다. 그의 안해인 한화옥동무는 같은 작업반 선반공이다. 그 역시 열정적이고 속이 깊다.

작업반에 맡겨진 작업과제를 놓고 김충혁동무가 마음을 쓸 때면 한화옥동무가 말없이 어려운 일감을 맡아나서고 한화옥동무가 부속품가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애를 태울 때면 김충혁동무가 높은 기술과 경험으로 부족점을 퇴치해주군 한다.

언제인가 낮에 밤을 이어 생산전투를 벌리느라 눈에 피발이 선 그들부부를 직장장이 억지로 등을 떠밀어 들여보낸적이 있었다. 그런데 잠시후 일터에서 귀에 익은 선반기소리가 다시 울리였다. 다가가보니 집에 들어간줄 알았던 그들부부가 다시 선반을 잡고 부속품을 깎고있었다.

《사람들도 참…》 하고 더 말을 못하는 직장장에게 한화옥동무는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일이 곧 휴식이고 기쁨이랍니다.》

그들부부에게 있어서 매일같이 깎아내는 부속품은 단순한 가공품이 아니였다. 농민들을 힘든 농사일에서 해방시켜주시려고 두차례나 공장에 찾아오시여 로고를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을 풀어드리기 위해 애쓰는 그들부부의 깨끗한 충정의 결정체였다.

지난 4월 어느날이였다.

취업없이 돌아가던 김충혁동무의 선반이 갑자기 동음을 멈추었다. 낮에 밤을 이어 전투를 벌리느라 전동기에 과부하가 걸렸던것이다. 즉시 고장난 전동기를 등에 지고 어느 한 기계공장으로 떠나려던 김충혁동무는 주저하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의 병을 애써 잠추며 일손을 다그치고있는 안해의 정상이 마음에 걸렸던것이다. 그때 남편의 등을 떠밀며 한화옥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부부도 만리마를 타야 할게 아니예요. 전 일없으니 어서빨리 떠나세요.》

바로 이런 마음에 떠밀려 단 하루만에 선반을 다시 살려냈을 때 그들부부의 기쁨은 얼마나 컸던가.

몸은 선반곁에 있어도 언제나 마음을 농장벌에 두고 사는 그들이다.

그들의 열정과 노력이 숨배인 농기계들은 협동벌을 누비며 논과 밭을 갈고 다 익은 농작물들을 떠여들이고있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함께 지켜간다는 자각이 그들부부를 언제나 위훈에로 떠밀어주고있는것이다.

축하무대에 오른 혁신자부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생각했다.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 가사보다 국사를 더 귀중히 여기고 당을 받드는 길에서 마음도 발걸음도 함께 하는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본사기자 리정수

독자의 편지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펜을 든것은 궂은날, 마른날 가림없이 지난 10여년세월 우리 늙은 부부를 진심으로 도와주고있는 해주시 상업관리소 로동자 신명희동무와 그의 남편인 해주의학대학 해주시제1인민병원 과장 장명수동무의 소행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들로 말하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원쑤놈들에게 부모형제를 다 잃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고아들입니다. 당의 따뜻한 품속에서 부모없는 설움을 모르며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누려온 저희들이 이제는 년로보장을 받은 몸이 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신명희동무는 우리 로인부부를 친부모처럼 여기며 진정을 다해 돌봐주고있습니다. 때없이 자주 찾아와 생활형편도 알아보고 자기가 성의껏 마련한 별식과 생활필수품들을 안겨주었습니다. 해주초등학원과 해주중등학원에 다니는 손자, 손녀가 학습과 소년단조직생활에서 모범이 되도록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줄 때 저도모르게 눈굽이 젖어들었습니다.

언제인가 남편과 함께 찾아온 신명희동무는 생활에서 애로되는것이 없는가를 일일이 알아보고는 그 다음날로 땔감과 김장용남새도 충분히 보장해주면서 우리 로인부부를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뜨거운 사랑과 정을 다해가는 신명희동무를 볼 때마다 저는 이런 훌륭한 새 세대들을 키워준 어머니당에 삼가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군 합니다.

해주시 해청동 53인민반 하익삼

인류의 마음속에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아프리카지역인터네트토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3돐에 즈음하여 《영원한 태양》이라는 주제의 아프리카지역인터네트토론회가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아프리카지역준비위원회와 나이제리아준비위원회,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의 공동주최로 3일 나이제리아의 아부자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와 관련하여 개설된 특별웨브싸이트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사진 문헌들이 모셔졌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경이적인 성과들, 조선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소개하는 편집물들이 올랐다.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와 지역 및 나라별준비위원회들, 베닌, 에티오피아, 민주콩고, 기네 등 여러 나라의 정당, 단체들, 주체사상연구조직 인사들과 성원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오세안지역과 나이제리아, 영국을 비롯한 나라별준비위원회들, 여러 나라 단체들에서 보내여온 련대성편지들이 소개되였다.

토론회에서는 기조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다미안 오그본나는 인류의 마음속에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토론회를 통하여 우리는 20세기의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희세의 정치원로이신 김일성주석의 거룩한 생애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된다.

주석께서 이룩하신 업적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업적은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인류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의 길을 밝혀주신것이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어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다.

조선혁명의 전력사적과정에 그이께서 제시하시고 관철해오신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방법들은 자유와 해방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따라배워야 할 투쟁의 교과서로 되고있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고결한 국제주의적의리심을 지니시고 아프리카인민들의 식민지민족해방투쟁과 새 사회건설을 직접 도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김일성주석의 천명한 카르치심과 사심없는 지지성원에 의하여 《암흑의 대륙》으로 불리우던 아프리카에 독립과 자주, 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위업은 김정일령도자에 의하여 드팀없이 계승되였다고 하면서 그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업적을 찬양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고귀한 생애와 업적은 존경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더욱 빛나고있다.

선대수령들께서 한평생 걸어오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려는것은 김정은각하의 확고한 결심이다.

조선은 오늘날 수소탄까지 보유한 무진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제국주의자들의 핵위협과 공갈, 강권과 전횡을 물리치며 정의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해나가는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 주체의 핵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또한 조선은 사회주의보루, 반제자주의 성새,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로서 국제무대에서 높은 권위를 지니고있다.

오는 8월에 성대히 열리게 될 백두산위인칭송대회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를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며 김정은각하를 21세기 인류자주위업을 승리에로 향도하실 또 한분의 태양으로 받들려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과시하게 될것이다.

이어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아프리카지역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니가루 다그나제우 제리네트, 나이제리아인민민주당 신흥위원회 위원인 나이제리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이브라힘 만루, 베닌 《김정일장군 만세》친목회 위원장 혜쑤 꼬코비, 민주콩고반둔두종합대학 선군정치연구소조 위원장 롤랑 뱀레 무셈뱅게, 남아프리카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협회 위원장 보나젤레 마주바, 기네주체문학사상연구회 회장 아브둘라이에 디알로 등 여러 인사들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여 우리 공화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하신 탁월한 정치가, 한세대에 미일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로 칭송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땅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우심으로써 진보적인민들에게 새 사회건설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시였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번영과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해주시였다. 그이께서 아프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과 새 사회건설에 물심량면의 지원을 주신데 대하여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고 그들은 피력하였다.

또한 토론자들은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시고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변혁들을 안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격찬하였다.

그들은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와 압력속에서도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길로 힘차게 전진할수 있은것은 조선이 사상의 강국이기때문이다, 대국이라고 하여 위대한 사상을 내놓는것이 아니다, 크지 않은 나라라 할지라도 걸출한 수령을 모시고 위대한 사상이 있으면 강국으로 존엄떨칠수 있다, 이것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령도아래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온 조선혁명이 세계에 주는 력사의 진리이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련일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김정은각하께서는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조성되고 만난시련이 겹쳐드는 속에서도 인민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세기적번혁을 이룩해나가신다, 그이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다는 위대한 인민관에 바탕을 두고있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김정은각하께서 계시여 조선은 일심단결된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더욱 위용떨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존함은 평화와 정의, 존엄과 진보의 상징으로 빛나고있다, 그이의 령도가 있어 사회주의위업, 세계자주화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천출위인이신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높이 받들어모실것을 진보적인민들에게 열렬히 호소한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히스테리적인 망동

일본당국이 그 누구의 《위협》에 대처한 《생존지도서》라는것을 발표하고 긴급대피방법을 선전한다 어쩐다 하며 설쳐대고있다. 《생존지도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처음으로 되는 《적의 공격》에서 살아남을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는 일본의 첫 정부적지침이라고 한다. 그 뿐자는 조선으로부터 일본방향으로 미싸일이 발사되는 경우 시민들의 생명보존방도에 대하여 그 무슨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한다는것이다. 《생존지도서》광고에 일본전국의 40여개 TV방송들과 70개의 신문들이 내돌렸다.

정상사고로는 도저히 리해할수 없는 히스테리적인 망동이다.

우리 공화국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리념으로 하고있는 나라이다.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군사적위협공갈과 핵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우리가 단행한 새로운 전략무기들의 시험발사도 지역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위한것이다.

우리 나라가 원자탄 및 수소탄보유국,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국으로 됨으로써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우리 나라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세기를 이어 지속되여온 미국의 핵전쟁도발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이 날로 강화하고있는 자위적국방력의 평화애호적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런데 일본당국은 협토당토않은 우리 나라의 《위협》을 떠들며 제2차 세계대전후 처음으로 되는 《적의 공격》이니 뭐니 하고 당장 전쟁이 일어날것처럼 자국민들을 들볶아대고있다.

속심은 다른데 있지 않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인위적인 공포심과 적대감을 고취시켜 군국주의부활에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하자는것이다.

일본반동들이 노리는 당면목표는 헌법개악이다. 헌법개악의 핵심은 일본의 재침과 침략무력보유를 불허한 헌법 9조에 칼질하는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민심은 그를 완강히 반대하고있다. 집권자민당이 국회선거의 《풍향계》로 불리우는 도쿄도의회선거에서 력사상 대참패를 당한것은 그의 반영이다.

일본반동들은 자국내에서의 헌법개악반대여론을 거세하기 위해 《생존지도서》까지 만들어 내돌리며 우리에 대한 공포증을 조성하고있다.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더 잘 속는다는 지난세기 나치스도이췰란드의 파렴치한 교리로 국민들을 얼려먹으려 하고있다. 《적기지공격》능력보유와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위한 헌법개악소동에 그 무슨 당위성을 부여해보려는것이다.

일본반동들은 지난 4월에도 지역 당국들에 피난훈련을 할것을 지시하여 북새통을 피워댔다. 국제사회에 금속히 류포된 조선반도에서의 4월전쟁설에는 군국주의부활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음으로양으로 쏠라다거린 일본의 간교한 행적이 비껴있다.

군국주의부활소동의 종착점은 재침이다.

세계의 지탄을 무릅쓰고 일본의 극우익정객들이 야스구니진쟈참배에 떼지어 몰려다니며 특급전범자들의 망령을 부르는것도 그때문이다.

일본반동들은 《생존지도서》니 뭐니 하고 히스테리적인 광기를 부리며 어떻게 해서나 자국을 전쟁국가로 만들어 국민들의 전등에 또다시 칠성판을 지우려 하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뒤집어쓴 패전국의 치욕을 되풀이하지 못해 안달이 나 하고있다.

다시한번 명백히 하건대 일본앞에 나선 급선무는 재침야망을 버리고 우리 인민과 여러 나라 인민들앞에 저지른 파렴치악을 성근히 청산하는것이다.

이것이 정상국가로 살아갈수 있는 일본의 진짜 생존요령이다.

리 효 진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영국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조선친선협회,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영국련대위원회가 6월 15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제가 조선전쟁을 일으킨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미제의 범죄적만행을 잊지 않고있다. 1950년 6월 25일 미제는 남조선괴뢰들을 부추겨 청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력침공을 도발하였다.

전쟁기간 미제가 저지른 소름끼치는 만행들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미국은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호시탐탐 새 전쟁도발의 기회만을 노리고있다. 미국이 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제재와 압박에 매여달리고있는것은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된다.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조선중앙통신】

침략적이고 굴욕적인 남조선미국 《행정협정》을 페기하기 위한 거족적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

미군범죄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북측본부 대변인담화

최근 남조선에서 침략적이고 굴욕적인 남조선미국《행정협정》조작 51년을 계기로 미국의 지배와 간섭, 강권과 전횡, 침략책동을 반대배격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더욱 고조되고있다.

《불평등한 행정협정개정 국민련대》, 통신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층 시민단체들과 인민들은 각지에서 《치욕스러운 한미행정협정 개정하라.》, 《한미합동군사연습과 싸드배치를 반대한다.》, 《미군 물러가라.》의 구호들을 웨치면서 련일 집회와 시위, 기자회견 등 반미투쟁의 기운을 높이고있다.

이것은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을 내걸고 지난 50여년간 남조선땅에서 살인과 략탈 등 온갖 범죄를 지절이은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울분의 폭발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1966년 7월 9일 미국과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이 체결한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합법화하고 강점자들에게 형사재판과 토지 및 시설사용, 세금업무, 《출입국》수속 등 모든 면에서 무제한한 특권적지위를 부여해줄뿐이니라 침략군의 범죄까지 무마해주는 전대미문의 매국협정이며 현대판노예문서이다.

이 굴욕적인 《행정협정》에 따라 미제침략군은 장장 반세기이상 남조선에서 치외법권적존재로 행세하면서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다.

세상을 경악시킨 의정부집단륜간사건과 윤금이살해사건, 태광리폭탄투하사건과 두 녀학생학살사건과 같은 미제침략군의 치떨리는 범죄적만행은 오늘도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살인과 폭행, 략탈로도 성차지 않아 남조선도처에 저들의 군사기지를 만들어놓고 유독성물질을 마구 내버려 불모의 땅으로 만들었을뿐아니라 핵무기와 살아있는 탄저균, 지카바이루스를 비롯한 생화학무기들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여 민족의 생존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그러나 미제침략군은 날강도적인 《행정협정》을 등대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제세상처럼 더욱더 활개를 치고있다.

자주를 지향하는 현시대에 외래침략군을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섬기게 하는 남조선미국《행정협정》과 같은 매국협정이 존재한다는것은 민족의 수치이다.

미제침략군이 인민들을 한갖 들쥐처럼 여기며 갖은 폭행과 범죄를 일삼아도 항변할수 없고 상소할데 없는 곳이 바로 남조선이다.

천하의 천미역적인 박근혜년이 민심에 의해 파멸당한 오늘 굴욕적인 협정페기는 더는 미룰수 없는 남조선인민들의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의 현 당국은 과거《정권》들과 다름없이 《동맹강화》를 운운하면서 미제침략군을 영원히 남조선에 주둔시키려고 획책하고있다.

초불민심을 대변한다는 남조선당국들이 미국에 찾아가 상전에게 굽신거리다 못해 인민들의 의로운 초불투쟁까지도 《미국이 이식해준 민주주의가 활짝 피운 꽃》이라고 모독하는가 하면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들여 북침핵전쟁도발에 광분하고있는것은 참을수 없는 매국적망동이다.

이것은 외세가 없는 자주의 새 세상, 친미굴종이 청산된 정의의 새 사회를 지향하여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섰던 초불민심에 대한 우롱이고 배신으로서 온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민족분렬의 원흉이고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제침략군을 구세주처럼 떠받들면서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서 살길을 찾으려고 날뛰다가는 특등천미창녀인 박근혜역도처럼 비참한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남조선 각계층은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을 비롯한 온갖 매국협정들을 철폐하고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체106(2017)년 7월 13일
평 양

그 어떤 압박도 제재도 통하지 않는다

행성을 진감시킨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단번성공은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치렬한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이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우리의 자위적억제력강화조치를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한 일대 장거로 격찬하고있다.

그런데 미국만은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있다. 자위적인 국방력강화조치를 《세계적인 위협》으로 몰아붙이면서 우리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압박의 도수를 최대로 높여보려 하고있는가 하면 감히 군사적공격에 대하여 떠들어대고있다.

주체조선의 불패의 국력에 덴집한자들의 한갖 허세, 가소로운 객기에 불과하다. 미국이 제아무리 발악해도 우리는 끄떡하지 않는다.

우리 나라의 대륙간탄도로케트개발은 년대와 세기를 이어 지속되여온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전쟁위협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자위적인 선택이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선택, 핵무력고도화에 대해 그 무슨 《위협》이니 뭐니 하고 걸고들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아보려 하는것은 어리석은것이다.

트루맨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력대 집권자들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정책들을 끈질기게 실행해왔다. 전쟁도 해보았고 핵위협공갈의 도수도 높여보았으며 초강도제재압박도 가해보았다. 미집권자들모두가 우리 나라와 정화적으로 공존하기를 바라지 않았으며 항상 대결을 선동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획책하였다.

그러나 조미대결과정은 미국이 압박하면 할수록 주체조선은 더욱더 강해지고 반면에 미국의 운명은 날로 위태로와진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트럼프행정부도 례외로 되지 않는다. 우리 공화국의 전쟁억제력강화에 기접한 트럼프행정부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은 정치와 군사, 경제, 문화, 외교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걸쳐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트럼프패거리들은 대조선군사적압박정책의 실효성을 합동군사연습을 통해 검증해보려 하였다. 핵전쟁연습소동에 옹근 하나의 전쟁을 치를수 있는 방대한 침략무력과 각종 핵전략자산들을 총투입하였다.

수리아의 공군기지에 《토마호크》순항미싸일 수십기를 퍼붓고 아프가니스탄의 한 지방에 초대형폭탄을 투하하고는 조선에 대한 경고로 된다고 허세를 부리였다. 합동군사연습의 막을 내리우기 바쁘게 2개의 핵항공모함타격단을 남조선수역에 끌어들이고 핵전략폭격기들을 조선동해상공으로 어러차례 비행시켜 핵폭탄투하연습을 강행하였다.

어떻게 하나 우리 군대와 인민을 놀래워보려는 술책이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진행된 각종 전략무기들과 신형무기체계시험발사의 성공을 지켜본 세계여론들은 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는 시간문제라고 하면서 미국을 아유, 조롱하였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탐활동과 군사적공세를 더욱 강화하였다. 지어 반공화국제재망에 우리 주변나라까지 끌어들였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적압박도 경제제재도 우리 공화국의 힘찬 전진을 멈춰세우지 못하였다.

우리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대성공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고집하는 가증스러운 미국의 정수리에 무자비한 철퇴를 내린 패승중의 패승이다.

더 큰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트럼프행정부가 우리 나라에 대한 군사적타격을 운운하며 단말마적발악을 하는것을 보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다시금 절감하는것은 침략자 미제의 날강도적본성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그것이다. 피를 즐기는 승냥이의 본성은 달라질수 없다. 우리 공화국이 강위력한 주체탄들을 더 많이 개발하여 분수없이 날뛰는 미국을 종국적멸망에로 몰아갈 때만이 이 행성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수 있다. 이것이 현 조미대결과정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확증한 진리이다.

미지배층은 날로 힘있게 과시되는 우리의 군사적위력을 보면서 말편잠을 못 자고있다. 최근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중국을 움직여 조선의 핵개발을 저지시키려던 미국의 계획은 실패하였다고 실토한것, 미중앙정보국 국장이 트럼프가 하루도 빈지지 않고 조선에 대해 묻고있으며 어떻게 대응할것인가를 놓고 고심하고있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머리속은 온통 조선으로 가득차있다고 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력없는 나라, 힘이 약한 민족만을 골라가며 타격하고 제통에 어울리지 않게 힘자랑해온 미국으로서는 동방불패의 핵강국으로 떠오른 주체조선의 지위를 싫든좋든 인정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미국이 오만성에 사로잡혀 남의 나라에는 줄폭탄을 퍼부으면서도 저들 땅은 조란 한발 떨어져도 안되는 곳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오산이다.

이제는 우리 나라를 보는 미국의 전략적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하며 미국은 지체없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공갈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케트를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것이며 핵무력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다. 제국주의의 목제의 혀를 완전히 짓뭉개버릴 때까지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정의의 핵억제력을 백배천배로 강화해나갈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정의가 승리하고 불의가 파멸하는것은 력사의 필연이다. 주체조선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

리 현 도

단 평 산채로 매장된 역적당

얼마전 대구에 있는 《자유한국당》지구당사앞에서 반역당을 력사의 무덤으로 보내는 《장례식》이 있었다. 《자유한국당》의 상징마크를 초상사진처럼 내건 《제상》이 차려지고 《적폐중의 적폐》, 《이런 날이 올줄 알았다.》라고 쓴 화환들이 놓여진 가운데 배감투를 쓴 시민들이 《주먹이나 먹어라.》고 웨치는 광경은 참으로 볼만 하였다. 력사를 케볼수록 매국배족과 부정부패의 자욱들뿐이고 저지른 행실에서도 고약한 악취가 풍기는 역적당을 한시바삐 땅속깊이 묻어버리려는 남조선민심의 지향이 이런 특다른 《장례식》을 펼쳐놓았다.

대구, 경상북도지역으로 말하면 수십년세월 피뢰보수패거리들의 《전통적인 표밭》, 지지기반으로 되여온 곳이다. 다름아닌 이런 곳에서 《제상》을 받았으니 《자유한국당》것들의 처지도 참으로 가련타 하지 않을수 없다.

지금 역적패거리들이 《혁신》이니, 《재건》이니 하고 너스레를 떨며 등돌린 민심을 꼬드기고 꺼져가는 잔명을 부지해보려고 발악하고있지만 소용없다.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이 희세의 범죄집단은 보는바와 같이 박근혜년과 함께 력사의 무덤속에 산채로 매장되고말았다.

허 영 민

독재《정권》이 가둔 량심수들의 석방을 주장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8일 남조선의 량심수석방추진위원회의 주최로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량심수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초불집회가 진행되였다.

2 000여명의 각계층 시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정권》이 바뀌였지만 독재《정권》시기에 갇힌 량심수들은 여전히 감옥안에 있다고 개탄하였다.

이러한 사태를 그대로 두고 인권에 대해 말할수 없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정부》에 사회개혁의 하나인 량심수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광장에 모였다고 하면서 그들은 로동자, 민중을 위해 싸우다 갇힌 량심수들이 모두 석방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집회와 때를 같이하여 세종문화회관주변에서는 량심수석방을 위한 서명운동과 시위 등이 벌어졌다.

【조선중앙통신】

살구멍을 찾는 력사의 퇴물들의 발광

집권기간 저지른 온갖 죄악들로 하여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파멸의 함정에 깊숙이 빠진 피뢰보수패당이 그속에서 헤여나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이자들은 《보수우파의 재건》이니, 《낡은 보수의 청산》이니 하면서 등돌린 민심을 회유하고 흩어진 보수세력을 다시 긁어모으려고 오그랑수를 쓰고있다.

얼마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전당대회들을 열고 당대표들을 새로 선출하면서 저들이 그 무엇을 할듯이 법새를 피운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박근혜역도를 등에 업고 민심에 도전하고 대세에 역행하며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들을 저질러온 피뢰보수패당이 이제와서 《새로운 보수》니, 《혁신》이니 하며 저들의 더러운 물골을 가리우고 민중의 환심을 사보려고 발광하고있는것이야말로 초불민심에 대한 우롱이고 도전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피뢰보수정당들을 해체시키기 위한 투쟁이 날이 갈수록 각계의 적극적인 호응밑에 힘차게 전개되고있다. 지난 5월 남조선에서 있은 《대통령》선거이후 《적폐정당 〈자유한국당〉 해체하라!》는 구호밑에 본격화되기 시작한 보수정당해체투쟁은 지금 통일운동단체들과 청년학생단체들, 로동운동단체들을 비롯한 광범한 세력들이 참가하는 대중적인 투쟁으로 강화되고있다.

지어 보수의 아성이라고 하는 대구, 경상북도지역에서도 보수정당해체투쟁이 벌어지고있다. 현재 남조선인민들은 초불집회와 1인시위를 벌리고 기자회견, 규탄모임 등을 열면서 보수정당해체를 웨치고있다.

또한 손전화기를 통한 《문자폭탄공격》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피뢰보수패당의 죄악을 단죄규탄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들은 《보수가 사멸되는 처지에 빠져들고있다.》고 평하고있다.

피뢰보수패당이 남조선인민들의 증오의 대상, 타도투쟁의 표적으로 되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이다.

피뢰보수패당은 천하악녀 박근혜역도의 더러운 치마폭에 매달려 《유신》독재부활과 파쑈폭압, 부정부패와 반인민적악정,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광분하면서 죄악을 산같이 쌓아온 극악한 매국반역집단이다.

특히 온 겨레가 지지찬동하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악랄하게 부정하며 그 리행을 거부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미쳐날뛰며 북남관계를 최악의 지경에 몰아넣고 조선반도에 극도의 핵전쟁위험을 조성한 역적무리의 죄악은 절대로 용서받을수 없다.

박근혜역도와 함께 법정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특급범죄자들이 아직도 살아숨쉬면서 파멸의 위기에서 헤여나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는것은 실로 남조선인민들의 격분을 자아내는 사태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역도의 특대형정치추문사건이 터진 그때에 벌써 《새누리당》을 청와대악귀의 추악한 공범자집단으로 락인하고 반역무리에게 사형선고를 내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뢰보수패당이 뻔뻔스럽게 다시 고개를 쳐들며 력사의 무덤속에서 제바라나오려고 발광하는것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피뢰보수패당이 그 무슨 《혁신》과 《쇄신》에 대해 골백번 부르짖어도 남조선인민들은 절대로 그에 속아넘어가지 않을것이다. 까마귀가 흰 칠을 한다고 하여 백로로 될수 없듯이 천하의 역적무리인 피뢰보수패당의 반역적본성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

피뢰보수패당이 되살아나면 남조선에서는 악취밖에 풍길것이 없고 지난 시기의 끔찍한 악몽만 재현되게 될것이다. 이것을 잘 알고있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역도와 공모결탁하여 온갖 죄악을 저질러온 피뢰보수패당을 징벌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이어가고있는것이다.

피뢰보수패당이 아무리 발악해도 남녘민심은 력사의 퇴물들에게 멸망의 조종을 울리였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악의 본거지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력사의 오물장에 처박을 때만이 초불투쟁의 진정한 승리가 이루어질수 있다고 하면서 역적무리를 쓸어버리기 위한 대중적투쟁의 도수를 더욱더 높이고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악으로 빚어진 피뢰보수패당은 썩어문드러질 때까지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의 구역질만 자아낸다.

독초는 뿌리까지 들어내야 그 후환이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살구멍을 찾으며 최후발악하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의 망동을 절대로 용납치 말아야 하며 가증스러운 역적무리를 가차없이 짓밟아버려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엄 수 련

ㄱ-711108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